2012.10.31 NO.181
korea.kr/gonggam

Weekly 공감

GCF GGGI

글로벌 코리아의 새 이름
'녹색종주국' 그린 코리아 P15~39

문화예술인들에게 꿈을 줍니다… '아름다운 상생' 메세나 P8~13
청년인력 가을 고용시장 열린다… 취업시즌 잇단 채용박람회 P6~7

녹색성장은 새 문명의 시작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20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됐다. GCF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장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현재 미국의 워싱턴시에 소재한 개발도상국 개발지원기구인 세계은행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지난 4년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면서 그 전도사 노릇을 자처해 왔다. GCF의 한국 유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리더십을 인정받고 녹색성장의 중심국가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민족적 경사(慶事)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 최빈국의 하나로서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위한 공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불과 30년 만에 오랜 가난의 역사를 탈피하고 중진 공업국으로 도약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발전시켜 온 기존의 '갈색' 경제성장 모델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녹색성장은 바로 이 점을 직시하고 그 대책으로 강구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서 2008년 8월 15일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인류사회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제시한 대안이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에너지원으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갈색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 누적되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 패턴의 교란으로 극심한 기상재해, 물 부족, 각종 생태계의 파괴, 식량부족 등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은 향후의 지구온난화와 자연훼손으로 인한 각종 재해와 위해요인에 대한 대책과 자연 생태계의 보존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인류사회를 전 지구적 위기에서 구하고 '지구책임적 문명'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전략이고 인류사회를 위기에서 구할 '지구책임적 문명'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GCF 사무국 유치로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21세기적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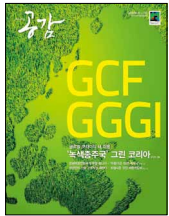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지난 4년간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전략의 연구 및 전파를 위한 중심적 추진체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서울에 발족시켰다. 지난봄에는 녹색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 녹색기술센터(GTC-K)를 서울 홍릉에 설립했다. 그리고 GCF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는 녹색성장의 그린트라이앵글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글로벌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본격적인 녹색성장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생활혁명과 경영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소비자, 기업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Contents 181호

2012.10.31 통권 282호

표지 이야기 |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에 성공했다. GCF는 우리 주도로 국제기구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술 연구와 전파를 담당하는 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재원–전략–기술의 '그린트라이앵글'을 형성, 우리나라가 국제 녹색성장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획특집

지구촌 녹색성장 중심축은 코리아

세계 기후변화 협상의 주역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송도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성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서울에서 국제기구로 출범했습니다.
GCF와 GGGI는 기존의 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녹색성장 기조를 아우르는 재정–전략–기술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이후 나라 안으로는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녹색생활혁명에 힘쓰고 나라 밖으로는 녹색국가 위상 정립에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이제 세계 녹색성장의 한 축에 서게 된 대한민국의 녹색리더십,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15

01 Reader & Leader | 녹색성장은 새 문명의 시작
16 녹색성장 코리아 | 지구촌 녹색성장 베이스캠프로 우뚝
18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미 | "녹색기후기금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
20 송영길 인천시장 | "대한민국과 인천이 함께 세계무대 진출"
22 최종구 기재부 차관보 | "인류 치유할 국제기구가 한국 온 것"
24 그린트라이앵글 | 세계경제 전환기에 구심점 역할 맡았다
26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 환경이 깨끗해지니 삶의 질은 올라가네!
28 GCF 유치 발빠른 노력 | 환경선진국 독일 꺾자 세계가 '깜짝'
30 녹색국가로 가는 길 | 국토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바꾼다
32 한국의 녹색기술 | "한국의 녹색수출 2015년 세계 4위 우뚝"
36 녹색 일자리 | "GCF 사무국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
38 전문가 제언 | 녹색성장은 국가 차원의 지속 과제

42

54

'아름다운 상생' 메세나
08 왜 필요한가 | 메세나! 문화예술 진흥 돕는 '메시아'
10 기업후원과 수혜자 스토리 | 향토기업의 향토예술 사랑 열매 맺어
12 기고 | 메세나법 시행돼야 더 큰 문화발전 이룬다
태권도 코리아
40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를 세계인의 친구로… 국제화 선도
42 사진으로 보는 경주 코리아오픈 | 태권도의 메카에서 세계인의 축제

48

04 공감라운지 |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
06 이슈현장 | 올 가을 청년인력 고용시장이 열린다
44 공감이슈 |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만난다
46 공감현장 | 한국어 해외교육기관 하나로 뭉친다
48 공감화제 | "장애 이겨내는 땀에서 새 희망을 봅니다"
50 정책소식 | "글로벌 인재 육성 현장 목소리 담았어요"
51 공감소식 | 생활밀착형 정보로 서민들 눈길 잡는다
52 IT 오디세이 | 전자책 통해 작가-독자 직거래 시대 온다
54 감성여행 | 팔방미인 여행지 강원 양양
58 한식을 생각한다 | '福'을 싸 먹는 쌈밥
59 역사인물 읽기 | 허균, 그럴 줄 알았어
60 화제의 책 | 〈님 침스키〉 수화를 배운 침팬지의 비극
61 공감 카툰 | 심부름 잘하는 까닭
62 문화공감 | 우리 설화가 발레와 만나다
63 디딤툰 | 글로벌 에티켓 108 자전車(?)
64 소통과 공감 | 부대찌개냐… 부대찌게냐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10.3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8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수원 고색119안전센터 이웃사랑 반가워

경기도 수원 고색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쁜 근무, 출동 속에서도 평소 월급에서 5천원씩 모으며 일상생활에서 절약하고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보니 곧 겨울이 올 듯한 추운 날씨지만 마음이 훈훈하네요. 나 자신보다 어려운 주위를 돌아보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널리 퍼진다면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화(40·주부·경남 양산시 소주동)**

지역균형개발과 관광수요 충족시켜 주는 관광열차

'차창 밖 백두대간' 관광열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국토가 협소하여 일반열차와는 다르게 야간열차와 침대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광열차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이동 중에 숙식을 해결하고, 시간을 아껴 가며 곳곳의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하러 떠나고자 하는 여행 마니아들에게 좋은 추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이 관광열차가 큰 몫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경석(25·학생·대전 중구 문화1동)**

귀농귀촌 현장교육 필요성 절감

180호 '딸기! 그것을 알려주마… 1 대 1 밀착교육'을 읽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시범사업의 다양한 역할을 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귀농 희망자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주고 농민들에게는 일손을 도와 주는 일거양득이네요. 귀농교육에서 이론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해 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귀농을 택할 것이 아니라 미리 농촌현장의 상황과 실정을 파악하고 과연 자신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장삼동(57·자영업·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귀농귀촌 성공하려면 '5계명' 꼭 지켜야

'귀농귀촌-전문가 제언편'을 관심 있게 읽고 다이어리에 스크랩했답니다. 저 역시 오래 전부터 귀농에 관심이 많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 고맙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와 닿았습니다. 사업아이템 분명히 하기, 도시에서 충분한 준비, 시골 사람들과 정겹게 지내는 연습 하기 등 실패하지 않는 귀농귀촌 5계명을 철저히 지켜 안정적인 귀농생활을 하면서 시골에서 〈위클리 공감〉을 계속 읽고 싶어요. **김동한(44·회사원·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독자 인터뷰

"정서적 휴식 취할 수 있는 문화·여행기사 많이 담아 주세요"

이소연(43·주부·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부 이소연씨는 여행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음식과 요리에도 관심이 많은 김씨는 〈위클리 공감〉의 '한식을 생각한다' '감성여행' 등의 코너를 즐겨 보며 스크랩해 둔다고 한다. 김씨는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가 볼 곳, 당장 먹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먹어 봐야 할 음식 등을 챙겨 보면서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다.

180호에서 재미있게 읽은 기사는.

"건강화제 '1일1식'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어요. 평소 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는데, 이 기사는 특히 '비만은 끼니의 수가 아니라 고열량 섭취의 문제'라는 지적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외에 눈길이 가는 기사는.

"감성여행 '단풍으로 물든 덕유산'에 눈길이 끌렸어요. 사진만 봐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게 말할 수 없는 청량감을 느꼈습니다. 벌써 이렇게 단풍이 물들었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올해는 뒷산으로라도 꼭 단풍을 보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책정보지라는 특성상 무겁고 진지한 정책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생활에 쫓기는 시민들을 위해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여행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독자 인터뷰 신청받습니다. 〈위클리 공감〉을 읽으신 후 느낀 점을 간략한 자기소개, 연락처, 얼굴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알 림

2012 제8회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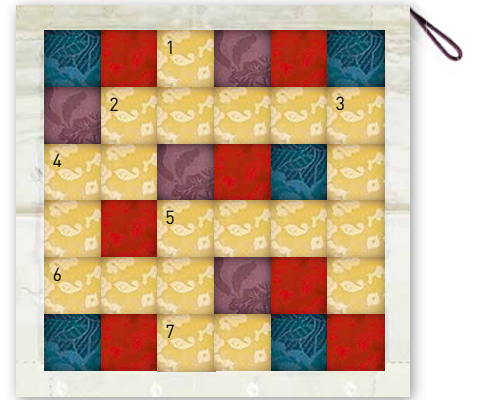
한국거래소가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를 연다.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에게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었다. 금융분야 중 증권과 파생상품 분야에서 자본시장을 이끌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및 시의성, 활용가능성, 논리성 및 충실성 세 가지이다.

응모대상 | 전국 4년제 대학 학부생(지도교수 1명 동일대학 학생 4명이 1팀으로 구성)
응모주제 | **예선**–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한 아이디어 **본선**– 10개팀 선발, 프레젠테이션 실시
응모일정 | 12월 12일까지
시상내역 | **개인상** 최우수상 1팀 1천만원 **우수상** 2팀 각 6백만원 **장려상** 3팀 각 4백만원 **본선입선** 4팀 각 1백만원 **단체상** 2팀 각 5백만원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문의 | univ.krx.co.kr의 QnA 게시판 참조

2012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

한강유역환경청이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수질보전 활동 및 물 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한다. 한강을 소재로 한 공모전을 통해 한강의 생태환경과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모 주제는 '역사의 한강', '문화의 한강', '생명의 한강'이다.

응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
- 역사의 한강 :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한강사진
- 문화의 한강 : 친수문화 활동 등 문화적 기능의 한강사진
- 생명의 한강 : 한강의 생물 등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한강사진

응모분야 | 사진
응모일정 | 11월 19일까지
시상내역 | 대상 2백만원 외 41작품
제출방법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http://hanriver.webclinic.co.kr/contest/photo/index.php)를 통하여 인적 사항 및 제출 작품 사항을 기재한 후 파일(jpg형식) 업로드
문의 | ☎02-3407-1509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주둔기지. 근거지. "송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대한민국은 이제 녹색성장의 ○○○○○가 되었다."
4. 밀가루 반죽 따위를 밀어서 얇고 넓게 만드는 기구.
5. 세숫물을 담는 그릇이죠.
6. 스웨덴 출신 이 사람 이름을 딴 상. 평화상, 문학상, 의학상….
7.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우주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8회 경남○○항공우주엑스포가 드디어 화려하게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세 로

1.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로 떠오른 가수.
2. 잠잘 때 베는 것.
3. 지금 한국시리즈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죠.
4. "이탈리아 ○○○에서 2만명가량이 강남스타일 플래시몹을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5.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이다."

〈Weekly 공감〉 179호(10월 1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무승부 3 동편제 5 유달산 7 대가 9 싸이
세로 1 무소유 2 부동산 4 제대 6 달구벌 8 가을걷이

〈Weekly 공감〉 179호 '공감 퍼즐' 당첨자
이나리·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안준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홍애원·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채혜진·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이인호·경북 김천시 신음동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2 해외취업박람회'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별 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 기업이 다수 참가해 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청년 구직자가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올 가을 청년인력 고용시장이 열린다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채용박람회 러시

취업 시즌을 맞아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잇달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채용박람회가 많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취업을 주제로 진행된 고용부의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지경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박람회를 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한전 등 80여 기관 참여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11월 23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서울무역컨벤션센터(세텍)에서 열린다. 2013년도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한다.

한전,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출입은행 등 80여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졸자 채용이 많은 기관 위주로 '고졸채용정보전용관'을 설치하고 고졸 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정보도 제공한다. 11월 6일부터 홈페이지(http://job.alio.go.kr)를 통해 참가 등록을 접수한다.

기획재정부 유예림 사무관은 "올해 행사는 특히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청년인턴제도 등 정부의 열린 고용정책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30~31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취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박람회다. 학력이나 나이 그리고 성별 등에 제한이 없어 모든 구직자가 참가 대상이다.

기업설명관과 컨설팅관이 마련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알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망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취업박람회'

21개국 70여 기업서 건설·IT 등 3백55명 채용

지난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한 '2012 해외취업박람회'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젊은 구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정부도 최근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이번 박람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호주, 유럽의 선진국을 비롯해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가를 포함 모두 21개국 70여개 기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구인·구직자 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곧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 정보기술(IT), 마케팅, 사무관리 등의 분야에 모두 3백55명 정도가 채용됐다고 밝혔다.

채용 행사 이외에도 이번 박람회에는 취업전문가 컨설팅, 해외취업 성공사례, 직업심리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 사이트 '월드잡(www.worldjob.or.kr)'을 통해 참여기업의 근로조건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취업박람회'

다국적기업 등 91개 회사, 1천2백명 선발

지식경제부도 지난 10월 25~26일 이틀동안 국내외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주관의 올해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보쉬, 지멘스, 듀폰, 동우화인캠, 3M, 바스프 등 포천글로벌(Fortune Global)이 선정한 5백대 기업 가운데 26개 다국적회사를 포함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총 91개 업체가 참가했다.

올해는 이들 글로벌기업이 현장에서 신입 및 경력직원을 1천2백명가량 채용하기로 해 청년취업자들의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행사 당시 채용규모가 6백명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참가기업 중 67퍼센트에 해당하는 61개사가 주로 이공계 인력을 채용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에 앞서 91개 외국인투자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필요한 구직자의 태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대한 능동적 자세(29퍼센트), 협력정신(21퍼센트), 세계화에 대한 열린 자세(18퍼센트), 목표의식(17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박해열 차장은 "앞으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

글·김대현 기자

메세나대상을 받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아트드림 프로젝트, 온드림 예술스쿨 등의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메세나! 문화예술 진흥 돕는 '메시아'

기업의 사회공헌 일환… 피아노 영재 문지영·피아니스트 손열음 등 길러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을 해 사회공헌을 하는 것을 뜻하는 '메세나'가 순수예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아노 영재' 문지영 양, 피아니스트 손열음 등 기업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음악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그 좋은 예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제13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열어 메세나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에 상을 줬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대학로의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예술나무 운동'이 출범했다. 예술나무 운동은 기업과 사회 각계에서 문화예술 창조와 나눔 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운동이다. 이 자리에서 사회 각계 대표 인사 1천명이 예술나무를 심고 가꾸겠다는 의지를 선언했다.

예술나무 운동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원일, 황병기 등 많은 예술가가 공연을 펼쳤다. 이들 외에 무대에 오른 '유망주'가 있었다. 바로 문지영(17) 양. 문양은 지난 8월 8일 독일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니스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뛰어난 재능에도 가정 형편 때문에 선화예고 진학을 포기했던 문양은 2009년 아트드림 콩쿠르에서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후 국내 최고의 조련사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와 인연을 맺었다. 우승 특전으로 매주 한 차례 레슨을 받으며 실력을 닦은 문양은 2년 뒤 랑랑, 김선욱, 손열음 등을 배출한 에틀링겐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으로는 8년 만이었다.

24일 2012 메세나대상에 현대차 등 시상식 가져

문양의 성장 뒤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 24일 한국메세나협의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3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2006년 이후 2천여 명의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공연에 필요한 악기를 제공하고, 레슨도 지원하는 '아트드림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현대자동차가 메세나대상을 차지했다.

문화경영상을 수상한 경남은행은 지난 5월 창립기념식을 겸해 시민들에게 바리톤 김동규 등 예술가들의 공연을 선보였다.

현대차는 '아트드림 프로젝트'뿐 아니라 분교 등 오지마을을 찾아 문화 양극화 해소에 힘쓰는 '온드림 예술스쿨' 등의 사업을 해왔다. 아트드림 프로젝트가 지역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아동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이 꿈을 펼쳐나가는 데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차원의 프로젝트라면, 온드림스쿨 예술교실은 오지마을 분교 등 집단을 선정해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적 문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올해 3월부터 열린 '2012 온드림스쿨 예술교실'에서는 강원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전국 산골 오지 소재의 분교 중 총 20개를 선정하고, 지역 예술단체 또는 대학 전문 예술가를 강사로 초빙해 음악, 연극, 미술, 국악, 무용 중 희망 장르에 한해 교육을 실시했다. 예술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공연 관람 등의 시간도 가졌다. 다음 달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선보이는 발표회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영화인 지원도… 찾아가는 콘서트 등 활동 다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인 문화공헌상은 11년간 미장센단편영화제를 후원해 온 아모레퍼시픽이 받았다. 미장센단편영화제는 <범죄와의 전쟁>의 윤종빈, <최종병기 활>의 김한민 등 스타 감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장센단편영화제 외에도 우리 전통 미술과 세계 현대 미술이 공존하는 특별한 전시 공간인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을 운영하며, 한국 전통 공예와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현재 작가의 작품 제작과 전시 지원을 하는 '설화문화전'을 해마다 개최하는 등 각별한 문화사랑을 지속해 오고 있다.

문화경영상을 받은 경남은행은 손꼽히는 지역의 문화경영기업이다. 지역문화예술지원단체인 경남메세나협의회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영화·연극·오페라 등 문화예술 소재를 활용한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함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창의상을 받은 종근당은 '어린이 오페라 여행'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오페라를 통한 문화나눔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공연인데, 무대는 병원 라운지나 병원 내 학교다. 관객은 온종일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투병하는 난치성 환아들과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어린이 오페라 여행은 어린이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오페라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태로 각색해 전달한다. 긴 투병 생활에 지친 어린이들의 감성을 치유하고 음악적 상상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일회성 공연은 많지만 어린이만을 위한 맞춤형 공연은 적어 호응도가 매우 높다.

한국 문화수준 향상에도 기여

종근당은 2009년 클림트전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전시회 후원에도 열심이다. 2009년 세계 미술작품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 잡은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공식 협찬했고, 2010년에는 샤갈전과 로댕전, 2011년에는 오르세미술관전을 잇달아 후원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도 루브르박물관전을 후원하고 한국국제아트페어를 지원하며 적극적인 아트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츠&비즈니스상은 태광산업과 삼일로창고극장이 받았다. 소극장 운동의 본거지로 통했던 유서 깊은 삼일로창고극장은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태광그룹의 후원으로 지난 8월 재개관했다.

태광산업은 국내 대기업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분야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순수예술이 있는 곳이라면 각종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광산업이 설립한 선화예술문화재단은 일반 대중에게는 문화예술 감상 및 참여 기회 확대를, 국내외 작가들에게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메세나 활동을 위해 노력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메세나인상은 LIG문화재단의 구자훈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LIG손해보험 회장으로 재직했던 구 이사장은 LIG아트홀을 건립하며 메세나 활동의 기치를 올렸다. 그로부터 3년 후 LIG문화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다. G

글·하주희 기자

향토기업의 향토예술 사랑 열매 맺어

기업 CEO의 문화·예술 철학 실천… 전문기업의 마케팅 활용 성공도

문화와 예술을 후원하는 메세나 기업의 사연과 목적은 저마다 다르다.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문화발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후원을 하기도 하고, 기업 CEO의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후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회사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메세나 기업도 있다. 메세나 기업과 이들의 후원을 받는 예술단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주판소리합창단 & 우진관광개발
복합문화공간 만들어 공연예술계에 단비

전주판소리합창단은 전북의 대표적인 메세나 기업인 우진관광개발의 지원을 받는 많은 예술단체 중의 하나다. 2004년 전국 최초로 판소리 합창단을 구성한 전주판소리합창단은 전북 지역 대학의 젊은 판소리 전공 출신자들이 만들었다. 판소리합창단의 방수미 단장은 "우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창단 공연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된 후원으로 인지도 높은 합창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골프장 태인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우진관광개발은 예향 전주의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진문화재단을 설립했고, 1991년 전주 덕진구에 우진문화공간을 개관했다. 우진문화공간은 예술극장과 갤러리, 연습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방 단장은 "우리 합창단원이 23명인데 전주에는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우진문화재단이 개방한 연습실을 통해 꾸준하고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진문화공간이 자랑하는 예술극장은 작년 말 개관된 2백4석 규모의 아담한 공연장으로, 지역 예술단체들에 문호를 활짝 개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같이 대규모 공연장은 있어도 예술성 있는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의 공연예술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진문화공간에는 65평 규모의 갤러리를 두어 지역의 미술가들을 후원하고 있다.

연습실은 예술극장 공연단체를 위한 연습공간 외에도 개인연습실, 녹음실, 성악 전용 연습실, 세미나실, 무용 및 연극 전용 연습실 등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대관 외에도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 '우리 소리 우리 가락', '우리 춤 작가전', '신예작가 초대전' 등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우진문화재단
우진문화재단은 전북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우진문화재단 김선희 운영실장은 "우리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와 단체들을 발굴해 그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예술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판소리합창단의 방수미 단장은 "시민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우진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통예술의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악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끊임없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후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솔로이스츠 & 벽산엔지니어링
클래식에 깊은 애정… 예술계의 키다리아저씨

세종솔로이스츠는 1995년 강효 줄리아드 대학 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8개국 출신의 최정상 기량의 젊은 연주자들을 모아 창설한 현악실내악단(오케스트라)이다. 미국의 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한 세종솔로이스츠는 창단 후 지금까지 전세계 1백개 이상의 도시에서 4백회가 넘는 연주회를 가져 왔다.

이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기업이 바로 벽산엔지니어링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의 김희근 회장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이사장, 예술의전당 후원회 부회장, 현대미술관회 부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을 정도로 예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 예술계의 '키다리아저씨'로 불리는 김 회장이 각별히 애착을 가진 장르는 클래식인데, 1997년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이사를 맡으면서부터 본격적인 후원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2006년부터 맺어 온 세종솔로이스츠와의 인연은 김 회장의 클래식 후원 활동의 백미라 할 만하다. 김 회장은 이 악단의 특별후원인으로 시작해, 미국법인 이사를 거쳐 한국에 사단법인을 창립하는 데 산파 역할을 했다. 2010년부터는 이사장까지 맡아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악단에 대한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석좌단원' 후원제도를 마련해 가능성 있는 젊은 단원들의 연간 연주료와 해외투어 경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다니니 같은 고가의 현악기를 단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세종솔로이스츠 조아란 공연사업팀장은 "단원(15~17명)이 유럽이나 미국 공연을 위해 움직이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며 "연주자들에게 투어경비 지원과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후원"이라고 말했다.

김희근 회장은 최근에 보다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대중화를 위해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조아란 팀장은 "김희근 회장께서 오래전부터 문화·예술 활동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세종솔로이스츠
세종솔로이스츠는 벽산엔지니어링의 후원을 받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스페이스톡
스페이스톡이 배포한 연극공연 초대장. 극단 오늘이 기획한 연극이다.

극단 오늘 & 스페이스톡
체계적인 문화마케팅으로 기업이미지 높여

조경과 환경디자인 전문 기업인 스페이스톡(SpaceTalk)은 문화·예술 후원을 회사 마케팅에 활용하는 메세나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의 '중소기업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해 극단 오늘과 결연을 맺고 체계적인 문화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스페이스톡은 최근 국내·외 시설물 디자인 관련 상을 석권하는 등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극단 오늘은 연극 '오감도', '술집—돌아오지 않는 햄릿', 뮤지컬 '락시터', '사랑에 관한 다섯개의 소묘'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는 작품을 다수 제작해 온 대학로의 실력파 극단이다.

스페이스톡은 메세나협회를 통해 극단 오늘을 후원하고, 대신 극단 측은 1년에 두 번 스페이스톡에 무료(오픈) 공연을 제공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스페이스톡은 문화·예술을 활용해 독창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이에 적합한 대학로 극단을 물색한 끝에 극단 오늘에 협력을 제안했다. 대표의 친분이나 기호에 의해 후원 관계가 이루어지는 보통의 결연사례와는 시작부터 달랐던 셈이다.

스페이스톡은 잦은 야근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거래처 설계사무소 직원들을 초대하여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연관람 후에는 배우와 연출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연극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스페이스톡 허수경 이사는 "처음에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술접대가 아니라 '문화접대'로 접대방식을 바꿔 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첫회를 하고 나니까 거래처의 반응이 매우 좋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이상흔 기자

일본 구루메 시에 있는 이시바시 미술관 전경. 일본의 세계적인 타이어 기업인 브리지스톤의 이시바시 회장이 고향 구루메 시를 위해 세웠다.

파주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국내기업의 후원을 받아 연주회를 열고 있다.

메세나법 시행돼야 더 큰 문화발전 이룬다

세수 3백억원 감소 예상되지만 기업들은 1천억 이상 투자 다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국가 이미지 제고다. 대중문화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다른 예술 분야로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에도 '메디치 가문'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메세나 실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든 국가든 규모가 커지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쏟아붓는 천문학적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 차원에서도 선진국일수록 국가 이미지 제고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국가홍보의 모범사례로 꼽는 일본의 경우 1972년 재팬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는 일본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일본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 해 2천2백억원 규모다.

재팬파운데이션을 모방해 만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1년 예산이 8백억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사례도 한 해 1조원 넘게 쓰는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이나 3천억원이 훌쩍 넘는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의 경우에 비하면 초라하기만 하다.

영국 국가홍보예산 1조원… 독일은 3천억 넘어

우리나라도 이들 선진국처럼 국가홍보 예산을 대폭 늘려야 마땅하겠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세계인들이 자연스레 한국의 우수한 예술을 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성공적인 예를 우리는 최근의 예술한류에서 목격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이나 아메리칸발레시어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등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는 한국 출신 프리마돈나가 주연급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 지난해 차이콥스키국제콩쿠르를 휩쓸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클래식 분야에서 한국의 젊은 연주가들의 약진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여전히 우리의 가슴이 허전한 이유는 이러한 예술한류의 파고가 국가나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에 기반하지 못한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문화진흥 '메디치가' 출현이 필요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융성과 르네상스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르네상스를 이끈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을 양대 축으로 당시 피렌체를 유럽 최고의 강국으로 이끌었던 최고의 최고경영자(CEO)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메디치 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시대를 읽는 CEO의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문화예술이 국가의 명성을 높이고 경제활력의 근간을 이루는 21세기형 발전전략임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이와 같은 메디치 가문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한다. 이제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경제와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 큰 기업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업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는 멍석을 정부와 국회가 먼저 깔아주고, 기업들이 신명나게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격려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09년 11월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메세나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메세나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상정 후 여야 간의 이슈에 밀려 결국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문화예술 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이 기업의 문화기부 확대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업의 의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메세나법은 기업의 돈이 예술계로 가게 하는 물길

그러나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세액감면이 자칫 '세수감소'로 이어질까 일각에선 우려한다. 과연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한국메세나협의회가 관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법안도입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세액감면에 따라 연간 약 3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은 법안이 도입될 경우 예술지원액을 1천억원 정도 늘리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2003년 메세나법을 제정한 프랑스의 경우도 3배 이상 문화예술에 관한 기부금이 급증한 사례가 있다. 세수감소액보다 기업의 지원이 더 늘어나고, 이를 통해 예술계의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며,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다수 예술가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예술창작의 활기가 높아지면 차이콥스키콩쿠르에서 거둔 것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메세나법은 기업의 돈이 예술계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는 일이다. 예술인재들의 양성을 위해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 민간의 지원과 후원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더 효과적인 것이다.

기업인과 예술인,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회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을 위해서라도 메세나법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구과제라 하겠다.

글 · 이병권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

기획특집

대한민국 녹색 리더십 지구촌에 활짝 펼칩니다

세계 기후변화 협상의 주역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송도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성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서울에서 국제기구로 출범했습니다.
GCF와 GGGI는 기존의 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녹색성장 기조를 아우르는 재정–전략–기술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이후 나라 안으로는 녹색기술 · 산업 육성과 녹색생활혁명에 힘쓰고 나라 밖으로는 녹색국가 위상 정립에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이제 세계 녹색성장의 한 축에 서게 된 대한민국의 녹색리더십,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16 녹색성장 코리아 18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미 20 송영길 인천시장 인터뷰
22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인터뷰 24 그린트라이앵글
26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28 GCF유치 발빠른 노력
30 녹색국가로 가는 길 32 한국의 녹색기술 36 녹색 일자리 38 전문가 제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된 10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등 유치 주역들이 밝은 표정으로 송도컨벤시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한덕수 GCF민간유치위원장이다.

연합

Green Climate Fund

지구촌 녹색성장 베이스캠프로 우뚝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녹색허브국가 역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공식 출범했다. 각종 환경 관련 국제행사 개최 혹은 유치까지, 최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리더십이 강화되며 녹색허브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IBRD)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의 유엔안보리 이사국 재진출 소식에 이은 또 다른 낭보다.

GCF는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인천 송도로 사무국 유치도시를 결정했다. 이날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5개 경쟁국과 다섯 차례의 투표 경합을 벌여 유치국으로 선정됐다. 더욱이 기후변화 분야 원조규모 세계 2위인 독일의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다. 1백9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GCF는 수백 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부 조직을 갖추게 되며, 매년 기금조성을 늘려서 2020년부터는 매년 1천억 달러 규모로 기금이 조성된다.

GGGI · GCF · GTC-K '그린트라이앵글' 완성

GCF는 당사국 총회를 가진 국제기구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유치한 소규모 국제기구나 국제기구 지역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환경 관련 대규모 국제기구 유치는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GCF 사무국 유치로 우리나라는 당장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에서 소프트파워와 리더십이 강화되는 무형의 효과를 거두었다. 또 녹색성장 전략을 담당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술 연구와 국제적인 전파를 담당할 녹색기술센터(GTC-K)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국제기구 GGGI는 지난 10월 23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GGGI는 200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뒤 2010년 6월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기구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에서 출발했다.

GGGI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리우+20) 정상회의에서 16개국이 국제기구 설립협정에 서명을 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세계적 이슈인 환경문제 주도할 계기 마련

GCF 사무국 유치로 GCF~GGGI~GTC-K로 이뤄지는 '그린트라이앵글'을 완성시켜 지속가능하고도 포용적으로 발전할 든든한 녹색성장의 토대를 형성한 우리나라는 최근 굵직한 국제 환경회의를 개최 혹은 유치하며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확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19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UNCBD COP11)에서 오는 2014년 열리는 제12차 당사국 총회를 유치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유엔 3대 환경협약의 하나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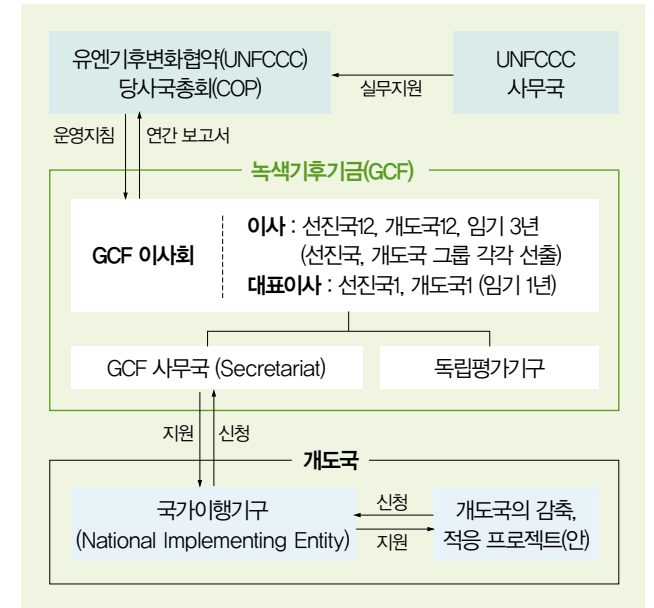
또 10월 22, 23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린 '기후변화장관급회의(Pre-COP18)'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총 47개국 2백50여 명이 참석해 규모나 참석 직급 면에서 한국에서 열린 기후변화 관련 회의 중 사상 최대이자 최고의 회의였다.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도하 총회(COP18)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인준되고, 기후변화장관급회의의 결과가 총회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속적 리더십 발휘와 기여를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성공리에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제주도에서 '환경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해 전 세계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NGO), 환경전문가 등 1백80개국 1천1백여 개 단체, 1만여 명이 참가했다.

분명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GCF 사무국 유치와 우리 주도의 국제기구 출범, 일련의 환경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올리고 세계적 이슈인 환경문제를 주도하며 녹색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이자 성과임이 분명하다.

광복 직후 혼란 속에서 유엔의 신세를 지던 국가에서 건국 60여 년 만에 유엔안보리에 진출한 데 이어 유엔기구를 유치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 그간 기후변화 국제협상뿐 아니라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여러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우리나라는 이번 GCF 사무국 유치, GGGI의 국제기구 출범 등을 계기로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녹색기후기금 운영체계

우리나라 관련 최근 국제 환경행사

일시	장소	내용
9월 6~15일	제주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전 세계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NGO), 환경전문가 등 1백80개국 1천1백여 개 단체, 1만여 명이 참가
10월 19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4년 열리는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UNCBD COP12) 유치
10월 20일	인천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유치
10월 22, 23일	서울	'기후변화장관급회의(Pre-COP18)' 개최, 주요 40개국 장관급 및 거물급 기후변화 인사 대거 참석
10월 23일	서울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서울에서 창립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입주할 인천 송도 '아이타워'.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이 인천 송도에 입주함에 따라 연간 3천8백억원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격 상승과 안보 효과도 기대된다.

"녹색기후기금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

연 3천8백억 경제효과…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격과 안보효과도

우리나라가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구다. 한국에는 그동안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제기구가 거의 없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국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국격 상승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함께 우리나라가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최근 우리나라가 신설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녹색성장기술센터와 더불어 녹색성장과 관련한 지식-기술-자금의 세 요소 간 협력체제를 갖추게 됐으므로 이들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의 직·간접 효과는 각 분야에서 크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국 주재원 5백명 예상… 장기적으론 1천명 이상 될듯

사실 우리에게 녹색기후기금은 생소한 국제기구지만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만만치 않다. 이번 유치전에서 한국이 독일과 맞서 이 기구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녹색기후기금은 막강한 국제기구다.

녹색기후기금은 기금 규모에서 2020년에 연간 1천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기금을 계속 확충하면 규모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이 비중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처음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재원 5백명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 2천5백43억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주재원의 소비지출 6백50억원,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 3백42억원 등 연간 3천8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기구 인력이 상주하면 소비지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가 열리게 돼 숙박, 관광, 교통 등 서비스산업의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무국 직원 수도 장기적으론 1천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거액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금융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녹색기후기금의 막대한 금융자금을 운용하려면 인천 송도에 많은 국제금융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기후기금을 통한 남북협력의 새 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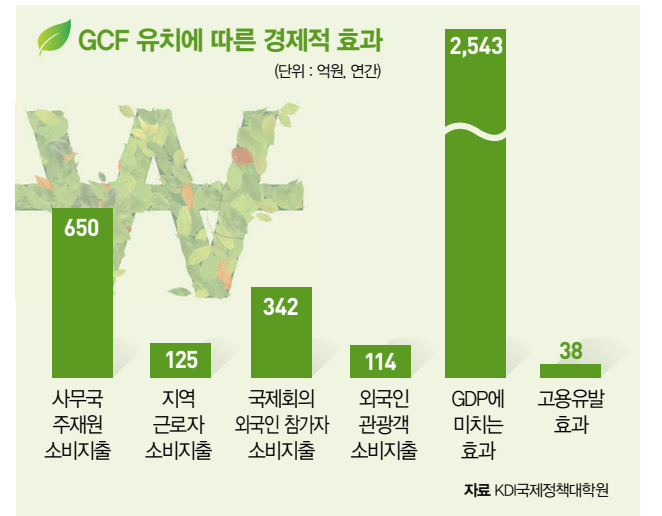
또 한국이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효과 가운데 하나다. 한국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본산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미래의 먹거리로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이 이미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시너지를 내 세계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 유치로 북한 등 외국으로부터의 도발을 방지하는 안전보장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10월 23일 '미국의 소리(VOA)'와 통화에서 "스위스의 경우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국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인천에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녹색기후기금을 상대로 무력도발이 있다면 1백90여개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도발하는 셈이 됩니다.

GCF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단위 : 억원, 연간)

항목	효과
사무국 주재원 소비지출	650
지역 근로자 소비지출	125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소비지출	342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114
GDP에 미치는 효과	2,543
고용유발 효과	38

자료 KDI국제정책대학원

김 기획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녹색성장 전략을 택할 경우 한국이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 장을 열어 '그린 데탕트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은 인천 송도다. 인천에서는 사무국 유치가 확정된 20일 오후부터 시내 곳곳에 환영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사실 인천 송도는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허브(hub)'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국제도시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8년간 27조원(민간자본 포함)을 쏟아 부었지만, 외국인 투자는 10억7백만 달러(9월 말 기준)에 그쳤다.

인천 송도 '비즈니스 허브' 도약의 기회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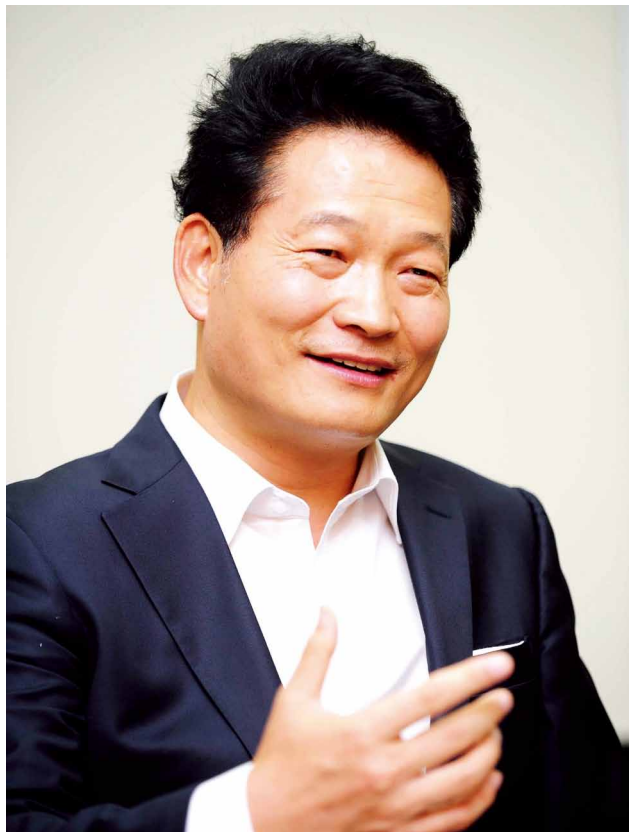
송도 국제도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일단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인천시 등은 우선 국제회의 등으로 해외에서 송도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호텔 등 숙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미국 투자회사 등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68층·3백12미터)가 한 예다. 경기침체 여파로 공정률 80% 안팎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지만 이번 유치를 계기로 정상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KDI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직원과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송도를 오가면서 연간 회의도 1백여 차례 열릴 전망이어서 컨벤션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해외에 송도를 알릴 기회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글·김남성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말하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의미

“대한민국과 인천이 함께 세계무대 진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리더 국가로 떠올랐다. 이와 동시에 몸값이 한껏 높아진 곳이 인천이다. 인천은 송도국제자유도시 개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다. 하지만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기사회생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함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한 송영길 시장에게 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선DB
송영길 인천시장이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 과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7일 덴마크로 날아갔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3GF(Global Green Growth Forum)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덴마크는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으로, 독일 본과 경쟁관계였던 인천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국가였다. 송 시장은 사흘 동안 코펜하겐에 머물면서 헬레 토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덴마크 중앙은행 부총재이자 녹색기후기금 덴마크 이사인 퍼 캘러슨 이사를 단독으로 만나 인천의 강점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인천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2차 이사회 기간에는 송도 컨벤시아 인근 송도 파크호텔에 닷새 동안 머물면서 12개국 대표들을 개별 면담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이 기간에 이사국 대표들의 개인 프로필을 확인은 물론, 저서나 칼럼까지 꼼꼼하게 외운 후 면담을 했다고 한다. 투표 하루 전날에도 점심을 필리핀 대표와 함께 하며 인천 송도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최대 수혜자는 인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연간 1천9백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인천발전연구원(IDI)분석결과)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시장에게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소감을 말해 주세요.

“우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기원해 주신 인천 시민, 이명박 대통령, 정부 기관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력을 쏟으면서도 ‘인천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지울 수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 과정을 돌아보면 박재완 장관의 말씀처럼 ‘천지인’ 삼재가 모두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했어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치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일부에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했다고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라고 합니다. 유치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규모가 8천4백5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녹색기후기금(GCF)은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를 모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기금을 모아 향후 7천억에서 8천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규모만 봐도 이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DB
2백90만 인천시민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한마음으로 지원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본부 유치 이후 매년 1천9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제기구를 유치했다는 건 대한민국과 인천이 아시아권에서 세계무대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 기금의 설립목적이 인류 전체의 공동 목표인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미래와 연관돼 있습니다. 사무국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만한 기구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2만1천 개의 주요 국제기구가 있지만 국내에는 32개 국제기구가 전부입니다.”

사무국 유치로 인천이 얻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3천8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도 지역경제에 연간 1천9백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연히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녹색기후기금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 Strategy),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 Technology)와 함께 녹색성장을 이끄는 3대 요소(전략·기술·재원)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사무국 유치로 녹색기후기금의 초기 3년 자금 운용을 맡게 될 세계은행(WB)의 한국사무소 유치 가시화를 비롯해 비중 있는 국제기구의 추가 유치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셨는데 향후 인천시는 어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인천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같은 대형 국제기구나 본부를 유치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내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스위스나 다음 달 카타르 총회 등을 방문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생각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이미 만들어진 기구가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침체됐던 인천 송도 부동산 경기도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송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송도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관계자들 사이에선 잃어 버렸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간 미분양되었던 송도 쪽 부동산 물량에 대한 문의와 송도를 찾는 방문객이 주말 사이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루 사이에 2백24세대가 바로 계약됐고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이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국제적 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 분위기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

글·김남성 기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말하는 사무국 유치 의미

"인류 치유할 국제기구가 한국 온 겁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송도 유치는 정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연합 전선을 펼친 끝에 낚은 대어였다. 한국의 성실하고 충실한 유치 활동 태도가 일부 유럽 국가,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치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뛴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들었다.

조선DB

최종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녹색기후기금 유치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치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독일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음 유치전에 들어갔을 때 막막했지요. 투표 10일 전까지도 판세는 오리무중이었어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을 제외한 23개 이사국에 친서를 보내고, 지지국을 정하지 않은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치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투표 열흘 전부터 독일을 지지하던 국가 중 5개국 이상이 한국 지지로 돌아섰다"며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은 득표전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자 한국 지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먼저 녹색기후기금은 우리 국민에게 생소합니다. 이 기금은 어떤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국제사회는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해 공통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금은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금융기구로,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전 때 인천은 독일과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습니다. 독일을 꺾고 우리가 유치하게 된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부는 4월에 유치제안을 신청한 이후 활발히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총 6개 국가였는데, 독일은 다른 신청국에 비해 재정적 지원공약이 우수하였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분야 원조규모 세계 2위인 점을 강조했죠. 이에 우리 정부는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4천만 달러 지원을 공약하였고, 사무국 운영비 지원, 이미 갖추어진 사무공간(I-Tower)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인당 GDP가 60달러에서 2만 달러로 발전한 경험의 공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의 적임국가,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아시아 지역에 전무하다는 점 등을 홍보기간 내내 강조한 것이 이사국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유치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표결의 순간이었습니다.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또한 있었지요. 비공식 회의에서 표결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치국가로 선정되고 결정문 발표를 하기 전에 약 20~30분 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밖에서 발표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조선DB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확정된 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민간유치위원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김성한 외교통상부 2차관 (왼쪽부터) 등이 유치 확정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정부의 여러 인사가 유치전에서 활약한 것으로 압니다. 관계자들의 활약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유치전 막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화와 서한을 통해 이사국들을 설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저도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아시아 주요 이사국들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해 이사국들의 신뢰를 확보한 것도 막판 득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님과 실무진 분들, 한덕수 민간유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민간유치위원님들, 청와대 김상협 녹색성장 기획관님, 송영길 인천시장님,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유치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휴가 한 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하고 치열한 유치전의 뒤에서 묵묵히 힘껏 지원을 해준 정홍상 대외경제협력관 외 기획재정부 녹색기후팀 식구들도 주역 중의 주역이라고 봅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 분야 핵심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와 리더십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존의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GTC-K(녹색기술센터)의 개도국 역량 강화사업과 연계되어 전략과 기술, 재원이 합쳐진 녹색 트라이앵글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국제적 허브로서 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예상하세요.

"경제적 효과 이전에 더욱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류가 현재 공통으로 당면한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인류를 치유할 기구입니다. 이 기금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기여할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국민 모두가 알아줬으면 합니다." G

글·김남성 기자

전략(GGGI)-기금(GCF)-기술(GTC-K) 모두 갖춰

세계경제 전환기에 구심점 역할 맡았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모델로 바뀌고 있다. 온실가스와 각종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방식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한국은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됐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략(GGGI)-기금(GCF)-기술(GTC-K)을 모두 갖춘 이른바 '그린트라이앵글' 국가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GGI 국제기구화 설립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 및 실무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린트라이앵글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GGGI),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GTC-K), 그리고 재원(GCF)을 모두 확보한 것을 두고 그린트라이앵글이라고 한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가능하게 돕는 기금이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개도국의 녹색성장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녹색기술센터는 녹색성장전략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삼각체제는 기후변화로 촉발된 새로운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녹색기후기금(GCF)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의 조달·집행 맡아

GCF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 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IMF와 세계은행에 이은 세계 3대 금융기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금은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환경기금 등 기존 기금도 있지만 규모가 작고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0월 20일 GCF의 한국 유치가 확정된 것은 외교적 승리로 불릴 만한 성과였다. 우리와 함께 경쟁하던 독일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개발도상국에 녹색정책과 기술을 꾸준하게 전수해 온 한국이 결국 판세를 뒤집었다. GCF 유치를 계기로 한국이 세계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GGGI와 GTC-K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재원을 담당할 GCF를 유치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녹색성장의 리더 역할을 맡는 게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GCF 유치로 파생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GGGI와 GTC-K의 개도국 역량 강화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창출 효과와 각종 금융서비스 등의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컨대 GCF 소속 1천명 이상의 직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후변화 전문가 및 유관 기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국제기구의 유치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인천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성장 전략 개발… 국제기구로 확대·개편

한국 주도의 민간기구였던 GGGI가 얼마 전 국제기구로 확대·개편됐다. GGGI는 지난 10월 23일 서울에서 1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국제기구로 승격을 공식 선언했다. GGGI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제적 의제로 발돋움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설립됐다.

GGGI는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 개도국에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설립 2년 만에 민간기구에서 국제기구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한국형 리더십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GGGI는 녹색성장 전문기관으로서 향후 국가별 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도 맡는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산업계가 적절한 정책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GGGI의 몫이다. GGGI는 2010년 에티오피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녹색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현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UAE 등 11개 국가로 활동반경을 넓힌 상태다. 특히 카자흐스탄이나 UAE는 국가 녹색성장 전반에 걸쳐 GGGI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개도국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미국, 독일 등과 달리 한국을 가장 적절한 협력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신부남 외교통상부 녹색성장대사는 이와 관련, "한국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환경 관련 기업들의 협력과 함께 이들의 해외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색기술센터(GTC-K)

녹색 분야 원천기술 확보 위한 역량 집중

녹색기술센터는 녹색기술 R&D와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 점검 및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설립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6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에서 설립을 선언한 지 10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GTC-K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R&D 공조체제 구축의 창구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선진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게 GTC-K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무상 지원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재산권과 국부 유출 등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GTC-K는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끔 개량한 녹색기술을 전수해야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략을 세워왔다.

최근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단순 지원을 거부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이미 각종 오염물질을 양산하며 선진국이 된 국가들이 이제 와서 각종 규제를 논의하면서 피상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GTC-K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기술의 거래가 아닌 확산의 개념에서 국제사회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기술은 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나노혁명을 들고 나와 시장을 선점했듯이 녹색성장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녹색기술 시장은 2007년 1조5천억 달러였으나 연평균 10.2퍼센트씩 성장해 2020년에는 5조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기술은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원 기술,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산업·공간 녹색화 기술, 환경보호·자원순환 기술, 무공해 경제 기술 등이다. 고효율·저공해 차량 기술의 경우 우리도 2010년 기술 개발에 착수, 2013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상용화 전략'에 맞춰 2020년까지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TC-K는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재설정해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무역 장벽이 없도록 하고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용도로 구축 등의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

GTC-K 전선영 연구원은 "우리의 녹색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GTC-K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26개 연구기관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김대현 기자

성창모 GTC-K 소장(오른쪽 세번째)과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하면서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이 된 태화강의 생태공원. 최근에는 외국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울산시의 그린정책을 배우러 온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오토리브(Autolib)'. 파리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오토리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이 깨끗해지니 삶의 질은 올라가네!

'정책-기술-재원' 아우른 시너지 효과… 국제사회 선도국 일원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한국 유치가 결정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불과 50여 년 전 국민소득이 1백 달러도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이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한편으론 감동스러웠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도 이번 GCF 유치에 따른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반 국민 사이에선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세실은 지난여름부터 공용 전기차로 출퇴근을 한다. 언제든 필요할 때만 잠시 사용하고 그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주차 공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市)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공공대여 서비스인 '오토리브(Autolib · 누구나 자유롭게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있다는 뜻)' 덕분이다. 8세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라면 '블루카'라는 이름의 4인승 전기차를 파리와 주변 42개 중소도시 1천백여 곳의 전용 정류장 겸 충전소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다.

울산광역시를 연구하겠다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있다. 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은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생태산업단지는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화학공업과 조선 · 자동차공업의 메카로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인했지만 심각한 환경 파괴를 겪어야 했던 울산은 지난 몇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생태도시로 재탄생했다. 과거 쓰레기 방치장으로 악명 높았던 태화강도 최근 연어가 돌아오는 강으로 탈바꿈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활동과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를 지향하는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노력은 파리나 울산의 사례처럼 세계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몸소 실천해야

그러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전 지구적 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들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지금까지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국제사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금융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마침내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GCF 설립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계 최초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해 왔다. 국내외에서 보여준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고 이것이 GCF 사무국 유치라는 국가적 경사로 이어졌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사안은 국제기구로 공식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전략-기술-재원'을 아우르는 이른바 '그린트라이앵글'의 시너지 효과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제도와 사회·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개도국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발굴·개발하고 프로젝트 수행 후에도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현지 인력 양성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은 GCF를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제반 과정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사회는 한국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이 '그린트라이앵글'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공조 · 균형 유지 책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이다. 과거 물적 자원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기술과 인적 자원 개발을 우선하였고 그 덕분에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 전문성, 인적자원 및 제도적 역량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개도국 국민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들이 발전을 향한 의지 및 동기를 갖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도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노하우를 한국은 갖고 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레바퀴처럼 '녹색'과 '성장'은 균형을 맞춰야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인류의 위기는 일부 국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긴밀한 공조 아래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에 주어진 역할은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한국의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안착, 발전시키고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녹색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도 커질 것이다. G

글 · 성창모 (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

GCF 이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독일을 제외한 23개 이사국에 "한국을 지지해 달라"는 친서를 보내는 열의를 보였다.

환경선진국 독일 꺾자 세계가 '깜짝'

한민족 특유의 '정성'에 유럽 3개국도 막판에 한국 지지

인천 송도가 10월 20일 녹색기후기금(GCF) 제2차 이사회 투표에서 독일 본을 꺾고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자 한 유럽 국가의 대표는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했다. 환경 분야 선진국인 독일을 꺾은 한국의 대역전극에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GCF는 아시아 국가가 유치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국제기구다. 세계 1백90여 개 회원국을 두고 초기 사무국 직원만 5백여 명에 달한다. GCF 사무국 송도 유치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에서 승인된다. GCF는 2020년부터 선진국들로부터 1천억 달러를 모금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카타르 총회에서 각국의 기금 분담 규모나 사무국의 운영 방안 등이 결정된다.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가 GCF 유치전에 뛰어들 때만 해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민족 특유의 '정성'을 보여줬다. 지난 8월 열린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 독일은 '지원하겠다'는 설명 한 줄이 달랑 달린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보여줬다.

운영비 등 독일보다 적게 베팅하고도 이겨

반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를 호소하는 1분30초짜리 동영상을 틀었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태도가 가장 성의 있고 충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표 10일 전까지도 판세는 오리무중이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독일을 제외한 23개 이사국에 "한국을 지지해 달라"는 친서를 보냈다. 당시까지 지지국을 정하지 않은 나라의 정상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회담을 가졌다.

한국이 '정성'을 보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중국은 "환경 국제기구는 아시아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을 공개 지지했고, 일본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미고(친구), 우리가 컷오프에서 떨어지면 다른 중남미 국가와 함께 한국을 밀겠소"라고 약속했다. 남아공 대표는 10월 17일 GCF 이사회 리셉션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녹색성장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자 유럽 10개국 중 3개국이 막판에 한국 지지로 돌아섰다. 이에 놀란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직접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며 역전을 노렸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50년전 지구 최빈국의 대변신… 개도국에 귀감

우리나라는 "기금 사무국에 2019년까지 최소 5천5백만 달러(약 6백억원)에 해당하는 금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스위스 등 쟁쟁한 경쟁국을 물리치고 투표권을 가진 24개 이사회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선심 공약이었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보다 더 큰 조건을 제시했었다. "사무국 건물을 새로 지어 무상 임대한다"는 조건은 한국과 마찬가지였지만 "2014년부터 각종 운영비로 매년 7백만 유로(약 1백억원)를 기한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이다. 명목 GDP가 3조3천억 달러(2011년 기준)에 달하는 이 나라는, 2003~2009년 6년간 연속해서 수출 세계 2위를 고수한 무역 대국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 총 GDP의 20.5퍼센트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의 경제강국인 독일은 높은 기술수준, 효율적인 생산성, 축적된 사회간접자본, 전문직업인력을 양산하는 교육 체제, 안정적인 정치-경제 시스템, 확고한 지방분권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 등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8천3백25억 달러(2011년 기준), 세계 15위권 경제규모이긴 하지만, 독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잠재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명인 '20-50 클럽'에 가입했다. 46년 만에 1인당 경제규모가 평균 2백43배나 성장하는 믿기 어려운 기적을 이룬 것이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지구촌 최빈국이 불과 50년 만에 급성장해 유럽 최강국 독일을 누르고 GCF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더욱 뜻깊다. G

글·이범진 기자

경쟁국 독일과의 관계

홀스타인 젖소와 용접 기술도 한국에 제공

한국과 독일은 GCF 사무국 유치를 놓고 치열한 표 대결을 했지만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CF 유치전에선 경쟁을 벌였지만, 한국과 독일의 유대는 매우 깊다. 한·독 두 나라는 1백29년 전인 1883년 11월 26일 한독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하면서 국교를 맺었다. 독일이 서울에 총영사관을 개설한 것은 1884년. 그 후 1903년 공사관을 세우면서 승격된 양국관계는 1905년 한일강제병합으로 한국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끊겼다가 1956년 서울에 독일총영사관이 개설되면서 다시 이어졌다. 독일 대사관으로 승격된 것은 1958년 8월 1일이다.

6·25로 폐허가 된 한국에 독일은 '도이치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젊은이가 독일로 건너가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함보른 탄광을 방문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의 연설'을 한 것도 이때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1967년 3월 당시 서독의 하인리히 뤼브케 대통령이 한국을 찾으면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는 긴밀하게 이어졌다. 당시로선 쉽지 않은 기술이었던 용접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수해 준 것도 독일이었으며, 홀스타인(Holstein) 젖소 품종을 우리나라에 보급해 준 것도 독일이었다.

이후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 2005년 4월 노무현 대통령, 2011년 5월엔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했다. 독일 측에서도 1991년 2월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대통령, 1993년 3월 헬무트 콜 총리, 1998년 9월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 2002년 6월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 2010년 2월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방한하는 등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총 1천7백킬로미터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지난 4월 전면 개통된 이래 자연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인근 남한강 자전거길.

국토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바꾼다

자원이용·환경오염 최소화를 성장동력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4년 성과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구축했고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해 녹색기술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녹색경영을 선택하고 있으며, 녹색생활은 바로 우리 곁에서 실현되고 있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지난해 5월 30일 경기도 부천시와 '1사 1하천 정비운동'을 추진키로 협약을 맺고 굴포천의 정화작업을 맡았다. 이후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유용미생물(EM)을 투입하고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굴포천 환경개선에 공헌해 왔다.

이 회사는 또 전사적으로 녹색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한 환경관리와 더불어 협력업체로의 녹색경영 전파와 공유 노력을 펼치는 등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힘썼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회사는 특히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협력 및 노하우 전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열을 회수·재활용하고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에 공헌한 점에 호평을 받았다.

녹색성장 비전 제시로 기업의 녹색경영 유도

녹색경영은 경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한 단면이다. 197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가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목된 뒤 지구온난화를 막고 인류의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공식 천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발표하면서부터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기업경쟁력 확보, 국토 개조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경제 분야에서 녹색성장은 크게 녹색경영 확대,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녹색기술 대상'은 녹색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수 녹색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우리 녹색기업이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2011년 도입한 제도다.

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

또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2008년 1조4천억원에서 2011년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세계 최대인 시화호조력발전소 준공(2011년 8월), LG화학의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2011년 4월) 등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국토, 환경, 국민행동 전반에 걸친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단을 설치했다.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했으며, 2010년 4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11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배출량 대비 30퍼센트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데 이어 국가 감축목표를 산업·건물 등으로 세분화한 '부문별·업종별 목표'를 확정해 2011년 7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따라 산업계와 일반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5월 1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오는 11월 15일 시행령 제정에 들어간다.

우리의 국토공간 구조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돼 왔다.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도 자전거 도로 확대, 그린카 상용화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교통체계로 탈바꿈해 왔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지정된 '푸른하늘의 날(5월2일)'을 기념해 지난 5월 1일 서울역광장에서 친환경생활수칙을 담은 미니화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총 1천7백킬로미터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2012년 4월 전면 개통된 이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통해 2006년 76퍼센트 수준이었던 4대강의 '좋은물(II급수, BOD 3mg/L)' 비율은 2012년 86퍼센트로 높아졌다.

소비패턴을 바꾸는 생활혁명도 일어나고 있다. 2011년 7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한 '그린카드'를 도입, 녹색소비 활성화 등 녹색생활에 대한 인센티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제 도입(2011년 11월), 녹색매장 지정제도 시행(2011년 10월) 등을 통해 전국 규모의 녹색제품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전국 1백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확대되는 등 전국적으로 녹색생활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녹색성장 확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우리나라 최고의 녹색생활·녹색산업 종합박람회인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가 10월 30~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주관하는 녹색성장 박람회는 녹색제품 생산 기업 및 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박람회다. 녹색성장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2012 녹색환경산업 취업박람회도 함께 개최되어 환경산업 분야 인재의 등용문이 될 전망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박람회** www.g-growth.or.kr ☎02-380-0620
- **녹색환경산업 취업박람회** jobfair.ecojob.re.kr ☎02-380-0221

서경리 기자

조선DB

하늘에서 내려다본 제주 한경면 풍력단지. 제주도에서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각종 실험이 한창이다.

여수엑스포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초대형 LED스크린.

"한국의 녹색수출 2015년 세계 4위 우뚝"

영국의 HSBC 보고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대폭 축소됐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은 이미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고효율 저공해 차량 등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20퍼센트포인트 이상 대폭 단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평가는 녹색산업에 대한 적극적 연구개발과 투자확대에 기인한 바 크다.

영국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지난 3월 '한국 녹색성장의 성과와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녹색제품과 기술(CSGT·Climate Smart Goods and Technologies) 수출의 50퍼센트 이상이 탄소 감축국가로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총수출 중 녹색제품과 기술의 수출비중이 2010년 2.4퍼센트에서 2015년 4.6퍼센트로 상승하고, 오는 2015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녹색제품과 기술 수출에 있어 4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HSBC의 이 같은 전망에는 한국의 녹색제품과 녹색기술 수출이 2005년 세계 15위에서 2010년 7위까지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근거가 됐다. 유엔 녹색기후기금 유치노력도 HSBC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다.

이 같은 평가는 녹색산업에 대한 적극적 연구개발(R&D)과 투자 확대에 기인한 바 크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그린정보기술(IT), 발광다이오드(LED), 그린카, 고도 수(水)처리, 원자력기술, 이산화탄소(CO_2) 포집기술(CCS), 연료전지 등을 '10대 녹색기술'로 지정, 범정부 차원의 '녹색기술개발 및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투자확대를 독려해 왔다.

이로 인해 몇몇 녹색기술의 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돼 일본 등 녹색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마트그리드
2013년 5월까지 해외진출 목표로 2단계 사업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풀이된다.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지난해 5월,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것.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 통신, 자동차, 가전 등 1백68개 기업은 모두 12개의 컨소시엄에 소속돼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MEF(Major Economics Forum)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선정된 후, 제주실증단지와 같은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국가 로드맵'까지 수립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27조5천억원을 투입해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다. 이에 지난해 5월에는 스마트그리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스마트그리그 안정구축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법률'까지 제정했다.

그 결과 완성된 제주실증단지에서는 현재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한 각종 실험이 진행 중이다. 2010년 11월에는 홍보관까지 개관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2차전지
연평균 20퍼센트 수출신장… 2011년 40억 달러

한국의 녹색기술은 이미 관련 산업의 신흥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장착되는 리튬 2차전지의 경우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약진이 돋보인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2차전지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4억 달러에 불과하던 2차전지 수출은 지난 2010년 32억 달러에 이어, 2011년에는 40억 달러(약 4조5천억원)로 급신장을 거듭했다. 연평균 20.7퍼센트에 달하는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4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본다.

실제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은 2차전지 제조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삼성SDI는 소형전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4월 충북 오창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용 2차전지 생산설비를 확보한 LG화학도 수주건수 기준(10건)으로 세계 1위에 오르며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로도 삼성SDI(23.4퍼센트)가 1위를 달리고 있고, LG화학(16.4퍼센트)이 3위로 그 뒤를 추격하는 모양새다. 산요(2위)와 소니(4위) 등 일본 간판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친환경 그린카
4대 기술강국 도약 위한 기술개발·제도 정비

2차전지 분야에서의 이 같은 산업경쟁력은 전기를 주동력으로 하는 친(親)환경 그린카 시장으로도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9월,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을 출시했다. 블루온 출시와 동시에 우리 정부도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그린카 보급확산을 위해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와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기차(EV) 구매시에는 휘발유 차량과의 가격차 50퍼센트 범위,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그린카 개발에 투입된 돈은 정부의 8백6억원을 비롯해 자동차업계 전체로 1조1천2백3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을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신재생에너지

2030년 보급률 11퍼센트 목표로 인프라 구축

연료전지와 함께 우리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1퍼센트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제도, 그린홈 보급 사업 및 그린카 보급 등과 같은 제도 도입과 사업 추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복합기술이므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기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그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비약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핵심 소재 및 시스템 개발 ▲경제성을 고려한 기술 상용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 진입 실현이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물 분해 수소생산 설비가 상용화된다면 청정에너지 사용을 생활화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평가받아

일반에는 조금 생소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이란 말 그대로 화력발전기를 가동할 때 태우는 석탄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다.

장차 이 기술을 상용화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 등에 저장할 수 있다. 반대로 발생한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송용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은 지난해 8월, 세계 최고 성능의 건식흡수제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0.5메가와트급의 파일럿 플랜트 운전을 통한 기술검증 및 경제성 평가를 완료한 것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분리막은 기존기술 대비 5백배가량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체의 선택적 투과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존 분리막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주효했다.

전 세계로부터 '혁신적 기술' '세계 최고'란 찬사가 뒤따랐고, 세계 최대의 가스제조 회사인 미국의 에어프로덕트사(社)는 지난 2009년 7월 4백억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협약까지 체결했다.

LED 분야

세계 5위서 2위로 "껑충"… 성장성 무궁무진

발광다이오드(LED) 역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주자들을 추월한 경우다. 전력소비가 적은 LED는 전 세계 전자업계에서 녹색기술로 각광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LED TV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단기간에 LED산업의 주요 국가로 뛰어올랐다.

현대중공업 음성 태양전지 공장 근로자가 태양광 모듈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 서변동 신천 하수처리장의 타워형 태양열발전소가 2011년 6월 완공됐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지금은 LED산업의 전 부가가치사슬(밸류 체인)에 걸쳐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대기업의 신규진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2백95개에 불과하던 LED 관련 기업들은 지난 2009년 7백81개에서 2011년 9백13개로 연간 2배 이상 급증을 거듭했다.

특히 삼성과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본격 진출로 LED 공정의 수직계열화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까지 LED소자 생산기준으로 세계 5위에 머물던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세계 2위로 삼단뛰기에 성공했다.

오는 2020년 예상하는 국가 전체 보급률은 60퍼센트.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LED조명 보급률은 2.5퍼센트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녹색중소기업과 녹색금융 지원

정책자금 대출과 함께 코스닥 상장 특례도

물론 '2.5퍼센트'라는 LED조명의 국가 전체 보급률은 녹색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을 제대로 싹 틔우기 위한 녹색금융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녹색산업과 관련한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등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 역시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 규모 확대, 보증료율 인하, 녹색펀드 조성 등을 통해 녹색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례로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은 지난 2011년 8조원까지 규모가 대폭 늘었다.

녹색기술을 갖춘 우량기업들을 키워 내는 것도 당면 과제다. 현재 우수기술을 갖춘 녹색기업에는 경상이익과 매출 등 재무요건을 미적용하는 코스닥 상장 특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평가와 보증지원 강화로 민간은행의 금융지원도 유도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등과 연계해 녹색금융 경영학석사(MBA) 과정도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통해 국가통합적 자원순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자원순환형 경제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장기적 복안이다.

이에 따른 녹색산업의 성장과 함께 녹색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부대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 녹색산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9년 51개소에서 지난해 87개소, 지난 6월에는 1백60개소로 3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또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할 녹색기술 연구개발 인력 역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8만6백81명이 양성됐다고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층, 기존 산업인력 등 취업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녹색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3년 20만개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수요자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녹색일자리 정보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범진 기자

“GCF 사무국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

이 대통령 북극 순방 동행했던 대학생 신수민씨… 녹색 일자리 창출 기대

녹색성장위원회 대학생 활동단 그린칼리지 4기 기자단 신수민씨는 얼마 전 북극을 다녀왔다. 국민대표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북극 순방길에 동행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북극의 현실과 그린란드의 녹색성장 현황을 전한 신씨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소식에 글로벌 녹색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GCF는 내년부터 송도로 이전해 초기에는 약 5백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민 기자

북극을 찾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목격한 신수민씨는 녹색성장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쁘지만, 녹색성장과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가워요.”

녹색성장위원회 대학생 활동단 ‘그린칼리지’(Green College) 4기 기자단 신수민(23·연세대 대기과학과4) 씨가 최근 있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목표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린칼리지 활동에 참여했던 다른 친구들도 기뻐하는 눈치예요. 집에서 송도가 가깝기도 하고요.”

신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북극 순방길(9월 7~14일)에 국민대표 자격으로 동행했다. 만화가 허영만 화백,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과 함께였다.

“가보니 ‘녹색의 땅’을 꿈꾸는 그린란드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그 사람들에게 녹색성장은 가장 적합한 대안이었어요.”

“그린란드에 녹색성장은 가장 적합한 대안”

신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러시아행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 일행과 합류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린란드까지는 대한항공 대통령 특별기를 타고 10시간30분을 날아 이동했다. 그린란드에서 다시 경비행기로 서부해안지역의 항구도시 일루리사트(Ilulissat)까지 이동해 북극권 빙하 지역을 탐방하고, 다음 날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날아가 이틀 일정에 동행한 뒤 대통령 일행보다 먼저 서울로 돌아왔다. 총 비행시간 29시간30분, 이동거리 2만3천3백71킬로미터, 5박6일의 인상깊은 여정이었다고 한다.

신씨는 대통령의 북극 순방에 동행하기 이전에도 그린칼리지 활동 우수자(기자단)로 선발돼 지난 9월 9박10일 일정으로 독일, 스웨덴에 녹색성장 해외탐방을 다녀왔다.

“해외탐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출국하다 보니 요즘에야 돌아왔다는 게 실감나요. 덴마크 왕세자도 봤는데, 참 미남이시더라고요(웃음). 지금 돌아보니 ‘평생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을 많이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걸 하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는 북극 순방에 동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났다”고 말했다.

“제일 처음 한 일이 세계지도에서 그린란드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평면 지도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둥그런 지도에서는 보기만 해도 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출발에 앞서 북극을 다룬 TV다큐멘터리에서부터 관련 기사와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통해 그린란드와 노르웨이의 역사, 빙하에 대해 공부하며 꼼꼼하게 취재준비를 했다.

조선DB

신수민씨(왼쪽에서 세번째)가 일루리사트 빙하 지역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북극방문 일행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왼쪽이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다.

“그린란드는 기원전 2천년 전 이누이트족이 서쪽에서 이주해 오면서 처음 인류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노르웨이의 영토로 간주되다가 1536년 노르웨이가 덴마크 속령이 되면서 그린란드도 덴마크 영토가 됐죠.”

그린란드의 일루리사트는 북극점에서 2백50킬로미터 거리로 빙하에서 바다로 떨어져 나가는 빙산을 직접 볼 수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지역이다. 일루리사트 빙하는 하루 평균 19미터를 이동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활발하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35제곱킬로미터의 빙산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곳 빙하 총 면적은 총 40만2천4백 헥타르로 2004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북극 방문한 게 졸업후 진로 결정에 큰 도움”

참고로 빙하와 빙산은 구분되는데, 빙하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수백~수천년 동안 쌓인 눈이 자체 무게에 의해 단단한 얼음으로 변한 것이다. 빙산은 빙하 끝부분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 조각을 가리킨다.

“일루리사트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북극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딱 요즘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바닷가에서 작은 빙산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북극 바다라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도 이곳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하더군요.”

북극곰을 직접 보고 싶었다던 그의 바람은 아쉽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극곰이 살 곳을 찾아 더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해 “체감할 정도로 빠르다”고 답한 현지인의 반응도 신씨의 걱정을 깊게 했다고 한다.

“북극의 빙하는 정말 하얗게 눈이 부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빙하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빙하얼음을 먹어봤는데 원래 빙하는 안 짜다고 하지만 약간은 짜더군요. 하하.”

그는 북극에 다녀온 뒤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다.

“대통령 특별기가 어떠냐, 북극곰은 봤느냐, 노르웨이 좋더냐 이런 것들요. 한 친구는 이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하고 왔는데, 환경을 보호한다는 녹색성장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죠.”

친구의 질문에 대해 신씨는 녹색성장과 자원외교가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한다.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중이다. 인류에게 재앙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녹색성장이 지금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노르웨이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답해줬죠.”

이번 순방은 대학 4학년인 신씨에게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계기가 됐다고 한다. 과학전문기자가 될까도 했지만 녹색성장 전문가가 되기 위해 좀더 공부를 하기로 말이다.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신씨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녹색기후기금 유치는 분명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녹색성장은 국가 차원의 지속 과제

기술·산업·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일관성 필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에 불이 난 것과 같은 대재앙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듯이 이 위기 속에서도 먼저 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화재 위험이 화재보험 산업의 기회가 되고, 불치병이 의료산업의 기회가 되듯이 기후변화의 도전도 녹색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녹색과 성장을 결합할 수 있는 축복은 오직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시간에 실현 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11%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목표달성도 용이한 것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녹색산업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아이디어로 단시간에 보급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오랜 원천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산업이다. 에너지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빨리 찾지 못하는 것은 녹색기술의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은 장기적 시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녹색성장은 전통산업과 다른 어려운 경주

녹색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의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 정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5년을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으로 보는 것이 옳다. 2013년부터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식으로, 정권을 넘어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간에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송도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국제기구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제도적 기틀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간은 이런 국내외적 환경에서 기업들이 저탄소 기업으로 혁신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길을 여는 데 있다. 현재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길은 선진국과 경쟁하던 전통산업과는 다른 어려운 경주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정권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태양광 발전모듈을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의 좋은 예다. 해외의 모델로 풍력발전의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의 교훈이 떠오른다. 풍력으로 덴마크 전력의 20퍼센트를 생산할 뿐 아니라 2025년까지 5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베스타스의 풍력터빈을 수입, 설치했다.

그런데 수입설치 모델은 녹색화는 되지만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은 반드시 기술경쟁력, 산업경쟁력, 수출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녹색성장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의 개념이 친환경의 개념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수려한 백두대간이나 청정 제주도 앞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적인가? 태양광 발전기를 갯벌 매립지에 펼쳐 놓은 것이 친환경인가? 조력발전을 위해 바다에 댐을 만드는 것이 친환경인가? 이런 대안들은 절대적 의미에서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문제는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려면 다른 에너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불행히도 다른 대안이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면, 상대적으로 최선책인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의 현실이다.

안전한 원자력 개발 외엔 선택여지 없어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독일과 인접한 프랑스는 76퍼센트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생각하면 독일이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독일의 전력요금은 우리나라의 2.7배 수준이고 28퍼센트의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일 프랑스가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오는 11월 20일이면 설계수명이 다해, 계속운전 인허가 심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실정상 안전한 원자력을 개발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극복한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미래 수출동력이 된다.

실현한다면 나중에는 독일이 프랑스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국민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50년간 호불호에 상관없이 다른 에너지 대안이 없다. 안전한 원자력을 개발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완벽하게 위험요소를 극복한 원자력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마치 위험한 우주항공 기술을 개발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위험을 극복한 원자력 기술이 미래의 수출동력이 될 것이다.

에너지의 생산만큼 중요한 것은 절약이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요금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자로서 높은 전기료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력요금을 가스요금 이하로 유지하면서 전기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화석연료보다 비싼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가격인상 요인과 탄소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대량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므로 그 균형점이 올 때까지는 비싼 가격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이 된다.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증세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에너지 절약에 더 효과적인 방법임은 자명하다.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노래한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연이 화려하다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깨달았다. 몇 년에 한 번 페인트칠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산천을 매년 바꾼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녹색성장의 기본동력

봄철에는 새잎 내고 여름에는 초록으로 단장하고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으로 치장하며 겨울에는 모든 잎 아낌없이 떨어뜨려 눈 쌓인 가지를 연출한다. 또한 땅 아래 석유가 없지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

이 혜택을 투자비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 눈부신 태양이 있고, 산바람이 있고, 때맞춘 비가 있고, 푸른 숲이 있다면 우리는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근본을 갖췄다. 이 위에 아직 보지 못한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녹색성장은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가 석유제품을 수출 1위 품목으로 만들었듯이. G

글 · 이재규 (KAIST 교수 · EEWS 기획단장)

태권도를 세계인의 친구로… 국제화 선도

세계청소년캠프·국제심포지엄 개최와 태권도원 건립에도 적극

한류가 활활 타도록 기름을 더한 게 싸이라면, 한류가 뭉근히 끓어오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불을 지핀 건 무엇일까. 태권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가 세계인에게 좀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국제화 노력을 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태권도진흥재단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05년 결성되어 2007년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법인화했다. 태권도에 관한 법인은 총 4곳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WTF), 국기원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WTF가 각각 국내경기, 국제경기 운영을 담당한다면 국기원은 주로 승단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의 업무는 크게 3가지다.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와 국제태권도심포지엄 개최, 태권도공원 건립이다.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The World Youth Taekwondo Camp)는 전세계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청소년들이 모여 태권도는 물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2009년에 1회가 개최됐고 그 후 매년 열려 지난 7월에 4회 캠프가 열렸다. 첫 캠프는 2010 싱가포르 유스(Youth) 올림픽의 준비대회 성격으로 열렸다.

청소년캠프서 올림픽과 태권도정신 가르쳐

2010년부터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청소년들이 OVEP(Olympic Values Education Program), 즉 올림픽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는 장으로 캠프의 성격이 발전했다.

지난 7월에 서울과 무주에서 열린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에서 참가자들이 겨루기 지도를 받고 있다. 양팔 없는 태권도 유단자 실라 래지위츠 씨와 베트남 최초의 올림픽메달리스트 쩐 히예우 응안이 함께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림픽과 태권도가 갖고 있는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태권도의 발전과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올해 캠프는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무주에서 열렸다. 33개국에서 온 2백1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특히 WTF 새로운 가입국인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 호주 북동쪽의 나우루 섬 출신의 수련생이 참가하기도 했다. 캠프 기간에 강연도 열렸다.

선천성 혈소판감소증으로 양팔 없이 태어났지만 장애를 딛고 태권도 유단자가 된 미국 여성 실라 래지위츠가 특별강연을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우리나라의 손태진과 베트남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쩐 히예우 응안(2000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도 특강을 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전문 태권도 지도자로부터 품새 및 겨루기를 배우고 한지공예, 전통혼례, 풍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심포지엄 통해 태권도의 학문적 기반 마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통한 화합을 실천하는 청소년들의 올림픽정신에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태권도심포지엄은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 철학에 대해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학술행사로, 지난 2006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 열렸다.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과 공동 주최한다.

올해는 지난 9월 3일 서울의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WTF의 조정원 총재와 아흐메드 풀리 아프리카태권도연맹 회장(WTF 부총재), 패트릭 차문다 IOC 위원, 토마스간다 시톨레 IOC 국제협력개발국장 등 국내외 태권도 관련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는 '올림픽정신과 태권도'였다.

세션 1에서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교의 프랑조 프랏 교수가 '태권도를 통한 올림픽가치 실천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통무예에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의 정신과 올림픽정신은 일치하며 올림픽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권도 관련 선수, 코치, 교사, 트레이너, 심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가치 교육은 중요하다"고 했다.

세션 2의 주제는 '청소년 인성교육과 태권도'였다.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의 이규형 교수는 선행연구와 현장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태권도정신인 존중, 겸손, 최선, 정도, 정직은 인성교육의 바탕을 이루며 청소년 인성교육에 매우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버클리대학교의 켄민 국제무도연구소장은 "2013년 태권도원 준공을 앞두고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심포지엄을 열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미국 버클리대학과 함께 매년 국제태권도심포지엄을 열어 태권도의 가치와 철학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원을 짓고 있다. 무주 백운산 자락에 터를 잡은 태권도원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세계인이 언제라도 찾아와 태권도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하며, 전문적인 태권도 교육·수련·연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무주 태권도원 2013년 6월경 완공 예정

상징시설을 통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노리고 있다. 2013년 6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10월 현재 약 76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국고 기준 사업규모는 2천4백24억원가량이다. 전시관과 경기장, 체험관 등의 시설은 국고로 지어지고, 상징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은 기부금으로 지어진다. 호텔과 편의시설, 전통 숙박마을 등의 서비스시설은 민자로 지어지고 있다.

태권도원은 체험지구와 수련지구, 상징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체험지구에서는 국내·외 태권도대회가 열리고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태권도 실내·야외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수련지구에서는 전문적인 태권도 교육·수련·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태권도 다이어트, 생활호신술 등 태권도를 이용한 수련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상징지구에 지어질 명인관, 태권전에서는 고단자와의 만남, 블랙벨트 수여식 등의 의식을 통해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측은 2014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1백1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

글·하주희 기자

1 "얍!" 한 선수가 태권도 발차기의 백미인 뒤후려차기로 상대의 공격을 제압하고 있다.

2 제7회 국제태권도 대회가 열린 경주 실내체육관은 태권도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3 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가 품새 경기를 펼치고 있다. 품새는 무도와 무예로서의 태권도 정신을 구현하는 태권의 핵심 기술이다.

4 태권도 시범단의 공중 격파 모습. 다양한 격파술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고난도 기술이다.

사진 · 경주코리아오픈조직위

태권도의 메카에서 세계인의 축제 열다

K팝과 드라마 이전에 한류의 선봉을 이끈 것은 태권도였다. 태권도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을 태극기 앞에 머리 숙이게 한 자랑스러운 국기(國技)이다. 세계인의 태권도 잔치인 제7회 경주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 대회가 10월 25일부터 6일간 경북 경주의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코리아오픈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권도 대회다.

이번 대회 경기 종목은 겨루기(남녀 각 8체급), 품새(개인, 복식, 단체)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경기방식도 태권도 국제화를 위해 독특하게 적용했다. 겨루기에서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구분해서 예선을 치른 후, 국내 · 외부 1, 2, 3위를 대상으로 챔피언 매치를 통해 우승을 가리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대회조직위 측은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들의 실력 차이를 인정해 외국인 선수들만 따로 예선을 치르기로 했다"며 "코리아오픈이 국내용 시합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제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오는 2016년까지 격년제로 3회 연속 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메카'가 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태권도 국제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진흥재단 등과 함께 태권도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글 · 이상흔 기자

"우린 태권스타일!" 10월 2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세종학당재단 출범식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희대 외국인 학생들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태권도와 한글을 형상화한 동작을 접목한 태권무를 선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의 교감에 힘써 온 특임장관실이 지난 6월 공동 주최한 '2012 소통과 나눔 파트너십 페어'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11월 2~3일에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이 특임장관실 주최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만난다

11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국민 소통 한마당' 열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특임장관실이 주최하고 한국NPO공동회의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사회 활동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과 나눔'의 축제의 장이다.

당신 가슴속의 따뜻한 온기를 누군가와, 어딘가와 나누고 싶은데 아직 그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곳을 찾으라.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이다.

이곳에 오면 교육·문화, 복지, 아동, 국제개발·구호·협력·교류·평화, 청소년·청년, 환경, 여성, 인권, 의료, 자원봉사, 장애인 인권, 통일, 종교, 노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운영하는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나홀로 아동 없는 세상 만들기, 청소년 자살예방 등의 각종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희망편지를 쓸 수 있으며 해외 식수결연사업도 후원할 수 있다. 또 국내외 불우어린이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후원, 아시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참여와 장애인 인권,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참여할지 길을 물을 수 있다.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맛보기

특임장관실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비영리민간단체(NPO·Non-Profit Organization)들의 협의체인 한국NPO공동회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경희대 공공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시민사회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된다.

특임장관실의 신용갑 시민사회팀장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양적·질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사회적 확산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왔다"며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올바른 의식 고취 등을 위해 이번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틀간의 소통 한마당 행사 기간에는 체험부스 운영기관 40곳을 포함해 총 1백9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체험부스 외에도 각종 홍보관과 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경희대 공공대학원 주관의 '2012 시민사회발전 콘퍼런스'가 열려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들과 시민사회발전 청사진이 발표된다.

올해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도 가져

인기 개그맨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재능기부 콘서트'와 젊은 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치는 '대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청소년 공감 유스 페스티벌', 게릴라 공연 방식의 '행복난장 한마당' 등 다양한 '소통과 공감 페스티벌' 공연도 소통 한마당을 찾는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다.

특임장관실은 지난 6월에도 백범기념관에서 시민단체·기업·정부가 함께하는 '2012 소통과 나눔 파트너십 페어'를 공동 주최하는 등 정부와 시민단체 국민 간 나눔과 소통을 주제로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오는 12월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민사회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통 한마당 개막식 당일에는 협동조합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테파노 자마니(70)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 볼로냐센터 부학장과 베라 자마니(70) 볼로냐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발전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

일시 11월 2~3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날짜	시간	행사내용
개막식	2일	10시30분	오프닝행사와 축하 공연 등
초청특강	2일	오전 11시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대 교수
기념세미나	2일	오후 3시	2012 시민사회발전 청사진 발표
대학생 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청소년 공감 유스 페스티벌	2일	오후 1~3시	예술전공 중·고생과 대학생, 동아리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공연
행복난장 한마당	2일	오후 4~5시	국립중앙박물관 전역에서 진행되는 게릴라 퍼포먼스
	3일	오후 3~4시	
직장인밴드 콘서트	3일	오후 4~5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공연
재능기부 콘서트	2일	오후 2~3시, 5~6시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공연
	3일	오후 5~6시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체험부스와 홍보관, 전시관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교육문화, 복지, 아동, 청소년·청년, 환경, 여성, 인권, 의료, 자원봉사 등 분야의 1백94개 시민단체 운영
	3일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올해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임장관실은 지난 5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6개 권역 총 7회의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홈페이지에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자료를 올려놓아 누구든지 내려받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업종이나 분야에 상관없이 조합원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자본 동원이 어려운 창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되어 영세상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베라 자마니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의 번역본이 지난 2월 우리나라에 출간된 바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한국어 해외교육기관 하나로 뭉친다

세종학당재단 출범… 43개국 90곳 세종학당의 본부 역할 수행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재단이 출범했다. 세종학당은 43개국 90개 지역에서 개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이 전문성을 갖추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종학당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어령 명예학당장,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할 재단이 출범했다. 바로 세종학당재단이다. 지난 24일 공식 출범한 세종학당재단은 지난 5월 공포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중국어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총괄하는 '공자학원 총부'처럼 전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세종학당의 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종학당의 교육 과정과 표준 교재 개발, 교원 파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송향근 부산외대 교수가 선임됐다.

이어령 전 장관은 "해방되던 열두 살 때가 돼서야 한국어를 마음 놓고 썼다"며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배웠던 한국말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영화를 보는 모습을 보면 다시 두근두근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재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공연도 했다.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태권도와 한글을 형상화한 동작을 접목한 '태권스타일'을 선보였다.

세종학당은 지난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종학당 1호가 개원한 이래 현재 43개국 90개 지역에서 개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을 '한국어 세계화와 한국 문화 소통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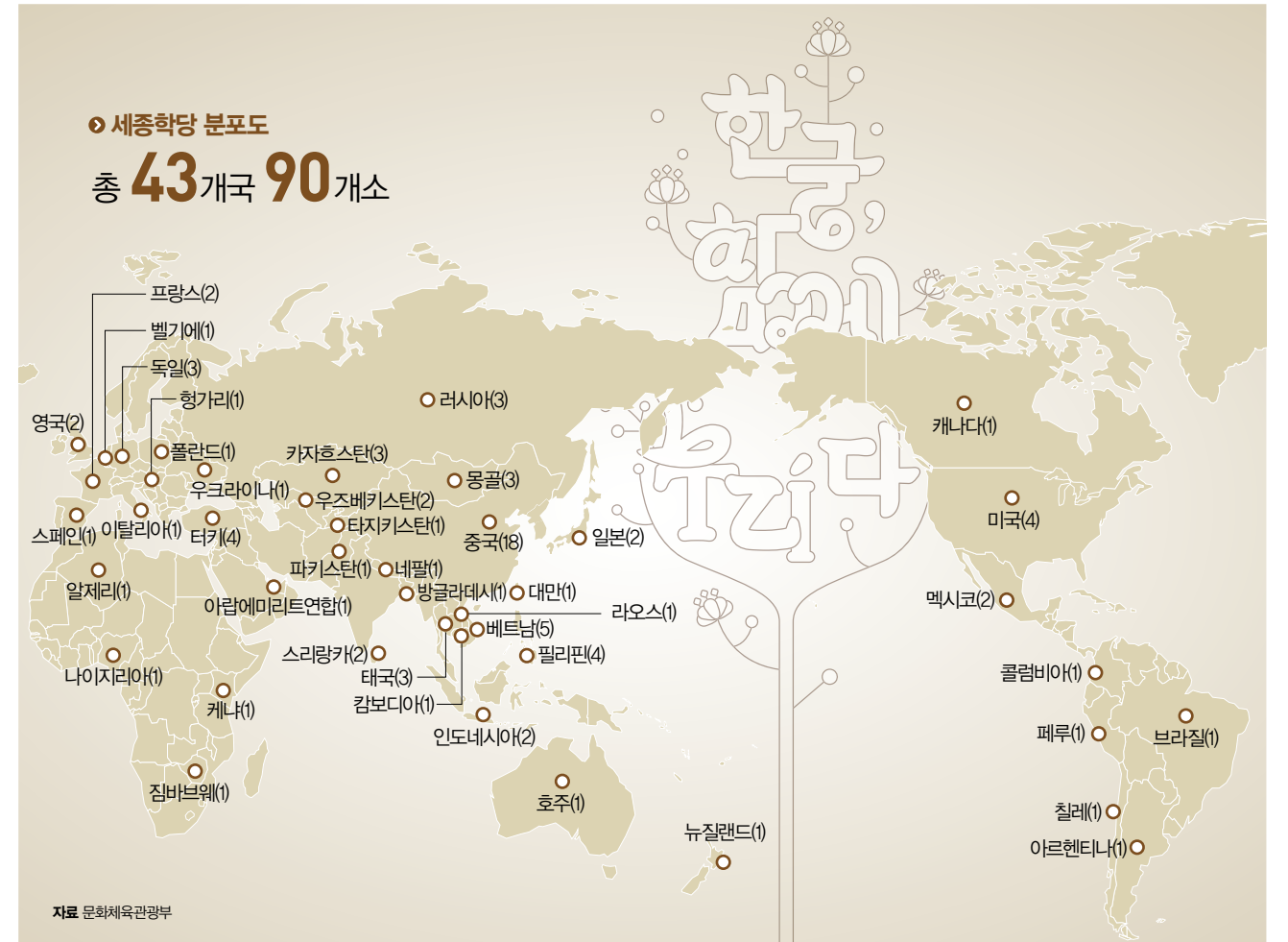
그 방안으로 4가지 전략을 세웠다.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전문화 ▲세종학당의 문화 프로그램 강화 ▲기관 간 연계로 세종학당 역량 강화 ▲누리-세종학당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 한국어 교육 지원이 그것이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이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교재 개발, 표준 교육 과정 개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12월 세종학당의 표준 교육 과정으로 개발된 6단계 교육 과정을 전 세계 세종학당의 기본 교육 과정으로 삼아, 이에 맞추어 통합 한국어 교재인 '세종 한국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초급 교재 4권의 개발을 마치고 내년에는 중급 교재 4권을 개발한다.

표준교재·표준교육과정 개발 등 담당

날로 높아지는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한다. 세종학당에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수를 늘리고,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술 강사도 해외로 파견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를 초청해 '한국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는데, 이때 참가한 학습자의 약 90퍼센트가 행사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문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세종학당과 공공기관, 기업 등 여러 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긴밀해질 예정이다.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기업의 후원을 통해 세종학당에 대한 교재와 교육 자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마트는 세종학당에 한글 발음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봇'을 지원하고, 천재교육은 '세종한국어' 교재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류의 다양한 한국 문화 확산도 지원

구글코리아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한국어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온라인 강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에 한국어 보급에 필요한 별도의 특별 채널을 설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안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학당재단은 유튜브 세종학당 전용 채널과 구글플러스 실시간 화상통화 기능 '온에어'를 활용해 43개국 세종학당과 일반 한국어 학습자에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교육 전문화를 통해 한류 열풍이 K팝을 넘어 문학과 영화, 미술 등으로 다변화돼 한국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G

글·하주희 기자

누리-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

유튜브 세종학당 전용 채널 www.youtube.com/LearnTeachKorean

'나라사랑 국토종단'에 참가한 1급 중상이용사들이 지난 10월 16일 출발지인 부산 유엔(UN)기념공원에서 출정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국토종단 4일째, 참가자들이 경북 구미의 구미보를 출발하고 있다.

국토종단 5일째, 충북 충주시의 탄금대 충혼탑 앞에 용사들이 도착했다.

국토종단 8일째, 인천에서 출발한 상이용사들이 폭우를 헤치고 서울 국립현충원에 들어서고 있다.

"장애 이겨내는 땀에서 새 희망을 봅니다"

1급 중상이용사 22명, 8박9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나라사랑 국토종단'

지난 10월 22일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급 중상이용사들이 국토종단의 목적지인 서울 국립현충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8박9일간 진행된 '나라사랑 국토종단'에 참가한 상이용사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핸드사이클을 타고 올라오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나라사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들의 행군은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노병(老兵)은 죽지 않는다'고 했던가. 60대를 전후한 용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국토를 종단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0월 15일 출발지인 부산 유엔(UN)기념공원에 모인 22명의 용사들에게는 찬사가 이어졌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나라사랑 국토종단'에 참가한 이들은 대부분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1급 중상이용사들이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국토종단이라는 힘든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일념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상이용사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1986년 11월 국내에서 훈련 도중 척추 마비로 상이용사가 된 이억수씨도 이번 국토종단에 참가하며, "부상 이후에도 삶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경유 지역 군부대 젊은 장병들과 대화의 시간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8박9일) 진행된 이번 국토종단에는 22명의 1급 중상이용사들을 비롯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구간별로 참가한 이들까지 합해 모두 1백60여 명의 상이용사가 동참했다.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중상이용사들은 핸드사이클을 타고 대구 다부동 전적기념관, 경북 문경 탄금대 충혼탑, 인천 인천상륙작전기념비 등을 거쳐 서울 현충원까지 총 7백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했다. 기존 도로가 아닌, 낙동강과 한강에 신설된 자전거길을 주로 이용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인근 군부대 자전거 동아리 소속의 장병들이 상이용사들과 함께 주행하며 전우애를 나눴다. 숙소와 식사는 경유 지역 인근 군부대에서 제공했다. 젊은 장병들과의 대화를 위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국토종단에 참가한 송신남씨의 경우 중상이용사의 모범적 극복 사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64년 군에 입대한 송씨는 1966년 베트남 파병 당시 저격수의 총에 맞아 전신이 마비됐다. 하지만 재활 스포츠로 선택한 탁구가 그의 인생을 다시 바꿔 놨다. 피나는 노력 끝에 상반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1972년 독일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에 출전, 2관왕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번 국토종단에 참여한 1급 중상이용사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운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 장애인올림픽 등에 출전, 국위를 선양한 인사들이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젊은 후배들은 좌절에 빠지지 말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운동으로 재활을 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다면 국가대표로 개인과 국가를 위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겨 내면서 동시에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의 땀과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나라사랑과 호국정신 국민과 함께하는 계기로"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바른 국가유공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이 상이용사들과 함께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종단을 주관한 국가보훈처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한 것도 이런 기본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김종오 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큰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 1급 중상이용사들의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이 국민들 가슴속에 고귀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김대현 기자

1급 중상이용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다 부상당한 상이군경 가운데 휠체어가 필요한 중증상태의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전국에 2천여 명의 1급 중상이용사가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 현장 목소리 담았어요"

교육과학기술정책 소개한 〈인재대국 2012〉 발간

"어떤 직장도 고졸자를 보조자가 아닌 주역 인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대졸자가 할 일, 저건 고졸자가 할 일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 초 "2012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정부는 학력이 곧 능력으로 통하는 관행을 깨고 재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펼쳤다. 취업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를 설립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줄 서는 학교', '학력의 벽을 뚫은 마이스터고'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 인기가 치솟고 있다. 대기업 취직이 확정된 마이스터고의 한 학생은 "미래에 취업난으로 걱정하는 대학생이 되지 않아도 된다"며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남들보다 먼저 꿈을 발견하고 실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간 추진된 교육과학기술정책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지난 10월 25일 출간했다. 〈인재대국 2012〉는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인재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재대국'은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이자,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다.

장·차관과 전·현직 실·국장 등 32명이 직접 기술

책 속에는 그간 추진된 교육과학기술정책의 내용이 실려 있어 우리가 몰랐거나 혹은 궁금했던 교육정책들을 볼 수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 정책 추진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담아 독자가 추진 배경부터 성과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분야 전공자나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에 있는 독자라면 관심 있을 각종 교육정책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창의성'이다. 몇 명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26세의 하버드대 출신인 마크 주커버그는 창의력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가 만든 '페이스북'의 가치는 무려 1백조원을 넘는다. 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마이스터고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줄 서는 학교', '학력의 벽을 뚫은 마이스터고'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사람의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창의성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소개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부터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델 제시, 교사연구회 운영, 창의경영학교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보여준다.

책에 소개된 한 중학교 교사는 2010년부터 주제 중심 과학탐구 수업을 해왔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실험과 탐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과학을 무척 흥미로워 합니다. 시험, 내신과 상관없는 수업이지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이 밖에 책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키워드인 '창의', '융합', '인재'를 중심으로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융합인재교육 등 다양한 과학기술정책도 소개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현직 실·국장 등 32명이 쓴 〈인재대국 2012〉는 국민들과 관계자의 정책 이해에 도움을 주고, 해외 학자나 정책관계자들에게도 한국의 교육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G

글·정소안 인턴기자

생활밀착형 정보로 서민들 눈길 잡는다

KTV 매주 월요일 방영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큰 호응 얻어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정책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전반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KTV)은 9월 가을개편을 단행하면서 생활에 밀접한 정책과 돈이 되는 알짜 정보를 전달하는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TV 추동진 편성담당 PD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여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 제작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라며 "돈을 모으고 아끼는 방법, 생활 속 고민거리와 궁금증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하반기 정책의 핵심을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에 두고 고용과 성장, 물가안정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에서는 의료, 복지, 경제, 노동, 교육 등 분야별로 정부의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정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혜택을 알려 국민의 경제생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민금융·만성질환 체계적 관리법 등 소개

방송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정책 소개에 실제 사례자를 등장시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다양한 영상기법의 활용으로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방송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0월 22일 방영된 '새일 찾기 프로젝트와 조기재취업수당' 편은 조기 퇴직으로 재취업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새일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자를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지원 내용과 혜택을 소개하고, 취업 6개월 후 신청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지난 9월 17일 방송된 첫회에서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병 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진행하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서비스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을개편에 따라 매주 월요일 새롭게 선보이는 KTV〈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생활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아래는 노년의 일자리를 다룬 방송의 한 장면.

시청자 이지현씨는 KTV 게시판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소개한 방송의 경우 새롭게 접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에 대해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서민지원 금융정보를 묶어서 전달해 주어 도움이 되었다"며 "관련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등 필요한 정보도 자막에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도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추동진 PD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는 노년, 우리 동네 착한 가게 등 생활밀착형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 방영된다. G

글·이상훈 기자

전자책 통해 작가-독자 직거래 시대 온다

1인출판·출판기획자들 전문화 진행… 출판사·유통사 입지 좁혀

종이책을 고집하는 한국의 출판사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책 판매량이 종이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지명도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1인출판, 출판기획자들의 전문화도 진행되고 있다. 출판사와 유통사가 사라지고 작가와 기획자, 그리고 독자만이 존재할 미래의 출판을 살펴보자.

국내 출판시장에서도 전자책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출판은 책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출판의 문턱도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리 기자

인터넷은 유통업종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온라인 쇼핑몰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단순 유통업자들을 도태시켰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등 정보를 독점하여 이익을 취하는 분야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인터넷으로 인해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제 가정주부들도 계란과 같은 생필품조차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판매 분야는 인터넷이 완벽하게 주류 유통망으로 자리 잡았다. 서점과 음반가게 등 오프라인 콘텐츠 유통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온라인 때문에 한국의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블루레이는 도입도 되기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출판 만화 시장 대신 인터넷 만화가 대세가 되었다. 불법복제 탓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향은 예정된 수순일 뿐이다.

종이책의 종말… 모든 책 디지털화 진행 중

책도 물론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작은 책방에서 새책 냄새를 맡으며 신간을 고르던 낭만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이고 아예 책 자체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구글은 지금까지 출간된 전세계의 모든 책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종이가 발명된 이후 인류의 지식은 책에 담기게 되었지만 검색이 힘들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책 속에 담긴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면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책이라는 형태의 상품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이 대세이므로 아날로그인 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업의 미래가 암담할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디지털화한 책이 유통되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전통적인 출판사 또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출판이 활성화하면서 중간단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유통사와 작가가 3대7로 수익을 나누는 형태가 정착되고 있다. 전통적인 출판시장에서 종이책 값의 10퍼센트 정도의 인세를 받던 작가들은 70퍼센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출판을 선호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디지털출판 시장에서도 여전히 출판사는 존재한다. 출판경험이 없는 예비작가와 아직 지명도를 얻지 못한 작가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야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책의 제작과 유통은 사라져도 편집 분야는 여전히 살아남을 분야다.

하지만 지명도를 가진 작가들은 출판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과 수익을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명도 있는 작가들이 오히려 출판사를 고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출판사의 역할은 축소되고 기획과 편집 그리고 마케팅 등으로 쪼개져 작가들에게 개별적인 분야를 서비스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출판사의 종말… 누구나 쉽게 책 제작 가능

작가들은 출판기획자를 고용하여 어떤 책을 만들지 결정하고, 원하는 편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교정을 받아서 책을 완성한 다음 직접 판매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거대 유통망이 작가와 기획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독립출판사는 사라지고 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책 단위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출판사는 해체되어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서비스하는 하부조직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출판은 책 제작비도 획기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출판의 문턱도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지명도 있는 작가들뿐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들까지 직접 책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된다. 출판 플랫폼이 활성화하면 누구나 자신의 책 한 권쯤은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미 미국의 아마존은 자비출판 도서를 지원하고 독자평가가 높을 경우 아마존이 직접 재편집하여 판매해 주고 있다. 아마존은 또 책뿐 아니라 자비로 만든 영화와 음악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해 준다. 아마존은 현재 인기 있는 외국도서를 직접 번역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출판사를 인수하여 직접 책 발간을 시도하고 있다.

애플 또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앱스토어 모델을 발전시켜 디지털책 시장에서도 작가와 독자를 직접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애플의 북스토어에는 누구라도 자신의 콘텐츠를 판매용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출판사들의 책뿐 아니라 자가출판도 활발한 편이다.

전자책을 판매하기 위해 꼭 이런 유통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자신의 책을 직접 팔아도 된다. 지명도가 있다면 유통 플랫폼에 30퍼센트의 수수료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소셜 펀딩이란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통해 미리 책을 판매할 수도 있다. 1백 편의 만화를 기획하고 일정 기부금을 넘을 때마다 한 편씩 발표하는 콘텐츠 판매 방식이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콘텐츠 유통 방식이 실험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출판사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책 속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면
>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 온라인출판은 책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낮춰
> 아마추어 작가도 직접 책을 만들어 팔 수 있어
> 음악시장에서 한 곡씩 음원을 팔 듯이
> 책도 한 권씩이 아닌 일부만 사고팔지 몰라

책의 종말… 정보전달의 도구 사명 끝나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책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점점 더 책을 읽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합당한 추론일 것이다. 아이들은 지루한 동화책보다는 컴퓨터와 TV 그리고 게임기를 더 선호한다. 모든 전자기기를 집에서 없애고 아이들이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음 세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책이 필요하겠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음악시장에서 음반 전체가 아니라 한 곡씩 따로 팔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책 한 권 전체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구입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숙제를 대신 해 준다고 비난받는 온라인 리포트 판매가 앞으로의 책판매 방식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전체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전히 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할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책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미래가 가까워 올수록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들게 된 작은 서점들이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G

글·김인성(IT칼럼니스트)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의 홍련암. 양양의 푸른 바다는 단풍놀이 후 휴식을 안겨 준다.

붉은 단풍과 파란 바다… 사랑을 한다

단풍으로 치장한 설악산은 바위의 웅장함과 계곡의 아기자기함이 결합된 최고의 풍광을 뽐낸다. 불타오르듯 물든 단풍은 절정은 지났지만 자태는 여전하다. 우수수 낙엽을 덮고 있는 만추의 설악도 매력적이다. 청명한 하늘을 수놓은 오색의 외설악은 남성미를 느끼게 하고 내설악은 여성미를 품고 있다. 양양은 청정한 바다와 몸에 좋은 음식, 그리고 약수와 온천이 있는 팔방미인 녹색 여행지다.

팔방미인 여행지 강원 양양

단풍철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지금 설악으로 향한다면 극심한 교통난을 피해 단풍을 즐길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우선 남설악으로 방향을 잡아 보자. 남설악은 외설악의 남성미와 내설악의 여성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 남설악의 중심에 있는 주전골은 남녀노소 모두 쉽게 오를 수 있는 단풍놀이의 단골코스다. 설악에서도 가장 짙고 아름답다는 단풍을 볼 수 있다.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 홍엽의 색깔을 가득 담은 계곡, 그리고 숲 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이 설악을 찾는 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가을 산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화려함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전골은 남성적인 외설악의 웅장함과 여성적인 내설악의 포근함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데, 설악산의 모든 장점을 한데 모아 놓은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주전골의 등산코스는 오색약수터에서 성국사, 선녀탕, 금강문을 거쳐 용소폭포와 십이폭포까지 오르는 구간이 가장 일반적이다. 다른 등산로에 비해 길이 험하지 않고, 산행시간이 짧은 편이다. 새빨간 당단풍과 주홍색을 띠는 활엽수가 온 골짜기를 뒤덮고 있다. 여기에 파란 하늘과 웅장한 암봉이 조연으로 등장한다.

가을철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계곡과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등산로는 산책로처럼 평탄하다. 경사지고 위험한 곳에는 철다리와 안전난간을 만들어 놓았다. 덕분에 여성이나 어린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입구에서 용소폭포에 이르기까지 계곡을 따라 늘어선 병풍바위, 칠형제봉 등의 암봉들은 골짜기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킨다. 계곡과 암봉으로 꾸며진 등산로를 걸으며 만끽하는 해방감은 주전골을 찾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약 3킬로미터의 짧은 등산로지만 설악산 단풍의 장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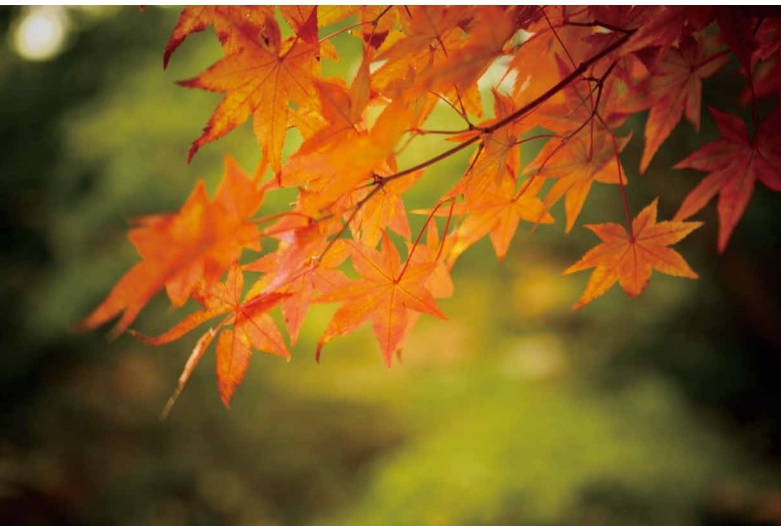
계곡과 암봉을 덮은 주전골 등산코스

오색약수터에서 시작하는 산행코스. 오색약수는 철분을 다량 함유한 탄산수로 톡 쏘는 맛을 낸다. 약수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다시 길을 따라 10여분 걸으면 성국사가 나타난다. 비교적 넓은 등산로라 오고가는 등산객이 많아도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성국사는 일명 '오색석사'라 불린다. 전설에 따르면 사찰 내 화원에는 다섯 가지 색을 가진 꽃이 피는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곳 지명이 오색리가 되었고 약수터에도 오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성국사를 지나면 계곡 절경지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심한 가뭄에도 옥수가 흐른다는 계곡을 끼고 기암괴석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도열해 있다. 이곳에서부터 선녀탕에 이르는 구간이 최고의 절경이다. 새빨간 당단풍을 주인공으로 하여 밝은 주홍색과 갈색을 띠는 활엽수와 사철 푸른 소나무가 골짜기를 뒤덮는다. 여기에 파란 하늘과 웅장한 암봉, 그리고 계곡물은 훌륭한 무대장치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

오색의 화려한 빛깔은 거울처럼 맑은 옥류에 반사돼 보는 이의 눈을 황홀하게 만든다. 선녀탕은 흰 바위를 타고 여러 개의 소가 연이어 있다. 달빛이 밝은 밤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돌아갔다는 구설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금강문까지는 산길이다. 하지만 말이 산길이지 산책로처럼 순탄하다. 등산을 하는

오색온천 지구에서 오르는 주전골은 남설악의 속살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단풍 산책 코스다. 계곡을 따라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히든플레이스다.

주전골 계곡단풍은 옥빛 계곡물과 선홍색 단풍의 대비가 마음을 훔쳐 간다.

동안 계곡의 물소리가 발걸음에 흥을 돋운다.

금강문은 주전골 한가운데 위치한 바위다. 두 개의 바위가 서로 기대 서 있어 사람들이 드나들 정도의 틈이 있다. 마치 출입문처럼 생겼다. 불교에서는 금강문을 잡귀가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 이름처럼 이곳을 지나면 절벽과 숲, 계곡의 풍광이 잘 어우러진 주전골의 또 다른 비경지대가 펼쳐진다.

금강문을 지나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용소폭포가 있다. 폭포 아래에 살던 이무기 두 마리가 승천을 하려 했으나 암컷이 준비가 안되어 수컷만 하늘에 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폭포는 그리 크지 않지만 너른 소를 만들어 놓았다. 폭포 위로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한계령과 만난다. 십이폭포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20분 정도 가면 있다.

본래 주전골이라 하면 금강문에서 십이폭포까지의 계곡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승려로 위장한 무리들이 이곳에서 몰래 위조 주화를 만들었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주전골이 좋은 이유는 눈이 즐겁고 입이 행복하고 몸이 편안한 여행지라는 점이다. 깊은 산에서 나는 자연산 송이를 비롯해 고유의 약초와 산채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자연의 정기마저 느껴진다. 주전골이 위치한 해발 6백미터는 인체에 적합한 기압상태를 유지해 최적의 생체리듬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오색온천 인구 송이요리집 식욕 돋워

오색약수는 옛날부터 치료효과가 뛰어난 물로 알려져 왔다. 이 약수로 오장육부를 적셔 주면 심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온천욕으로 피로를 말끔히 풀 수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호사로운 여행지는 없을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관광객이 오색온천을 찾는다. 이 온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온천이다. 온천지대엔 10여 곳의 온천탕이 있다. 그중 오색그린야드호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색온천과 탄산온천이라는 두 가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오색온천은 알칼리성 온천으로 피부에 닿으면 미끈미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다. 신경통과 피부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활치료와 피로회복에 좋다고 한다. 탄산온천은 호텔에서 개발한 것으로 일본의 유명한 탄산온천인 아리마온천을 능가하는 수질을 자랑한다.

중탄산과 이산화탄소 등 인체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고혈압, 동맥질환, 간경변, 당뇨병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천탕 입욕 30초 뒤부터 신체의 약한 부위나 상처 난 부위가 따끔거리며 기포가 생겨나고 돌기가 솟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인한 왕성한 혈액순환의 결과다. 초대형 개폐식 온천 수영장은 야외의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투명돔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색온천 입구에 송이요리와 버섯요리 전문점이 즐비하다. 자연산 송이와 한우 구이는 최상의 조합이다.

주전골 일대에는 몸에 좋은 각종 산나물을 비롯해 자연산 송이가 많다. 일반 관광객의 채취가 제한되는 곳이 많다.

설악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양양방향으로 이동하면 낙산사가 나온다. 2005년 화재로 원통보전, 홍예문 등이 불타 버린 천년고찰. 지금의 낙산사는 조선 초기 고증을 통해 다시 지어졌다. 여전히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본모습을 찾아 가고 있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낙산사는 가능하면 들러 보기를 권한다. 동해바다를 향해 자리 잡은 거대한 해수관음상으로 이어진 길이 으뜸이다. 의상대에서 바닷가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고 역사를 아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곳을 여유있게 둘러보려면 적어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숨겨진 미항 남애항 드라이브도 해 보길

낙산사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하조대로 시선을 던져 보자. 우뚝 솟은 기암절벽이 노송과 함께 어우러져 한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한다. 이곳에 서면 동해안의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이 잠시 머물다 간 곳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성을 따 하조대로 명명됐다고 한다. 이곳은 태조 왕건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하조대에서 바람을 쐬고 난 후 바로 옆 구름다리를 건너 10여미터쯤 절벽을 따라 들어가면 새하얀 등대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조대에서 맞는 일출은 아름답고 장엄하기로 유명하다. 이곳 일출을 보기 위해 설악의 등산객이 발걸음을 멈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바다를 비추는 등대 불빛을 감상하고 가는 관광객도 많다. 양양의 바닷가 풍경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양양의 숨겨진 미항 남애항도 드라이브를 겸해 둘러보면 좋다. 주문진항이나 대포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은 포구다. G

글과 사진 · 유철상 (여행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서울에서 출발해 양평~홍천을 거쳐 44번 국도를 타고 가면 원통에 이른다. 한계리관광민예단지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한계령을 넘는다. 정상의 한계령휴게소에서 약 10킬로미터쯤 내려오면 오색온천, 오색약수 입간판이 보인다. 오색약수를 찾아 산행을 해도 되고, 용소폭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전골로 내려와도 좋다. 하조대는 남대천을 따라 내려와 양양 읍내에서 강릉 방향으로 우회전해 조금만 가면 좌측에 이정표가 나온다.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033-672-2883**

먹을 곳 송이요리 별미집 선녀봉(☎033-672-8500). 양양의 가을철 최고 별미는 자연산 송이버섯이지만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주전골 입구의 오색그린야드호텔 한식당 선녀봉에서는 저렴하게 송이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버섯모듬전골을 주문하면 자연산 송이를 비롯해 표고, 양송이, 석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을 모두 맛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문의 양양은 리조트, 콘도, 펜션, 민박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유독 많은 곳이다.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를 끈 **양양 솔비치호텔&리조트(☎033-673-8311)**는 객실이 호텔과 콘도식으로 꾸며져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편리하다. 온천과 숙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미천골휴양림(☎033-673-1806)**에서는 울창한 산림을 배경으로 잠을 청할 수 있다. 하조대와 남애항 주변에 펜션과 숙박시설이 모여 있다.

‘福’을 싸 먹는 쌈밥

우리 고유의 음식 쌈밥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음식전문지 〈레스토랑〉은 한인 2세 데이빗 장이 경영하는 뉴욕의 퓨전 쌈밥집 ‘모모푸쿠 쌈바’를 지난 2009년 이후 4년 연속 세계 50대 레스토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카고트리뷴〉은 쌈밥을 건강음식으로 소개하면서 입맛대로 골라서 싸 먹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언론인 이규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내부를 외부로부터 가리는 내포문화라 했는데 그것이 음식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 쌈밥이라고 했다.

쌈밥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캔 채소를 날로 먹는 ‘들밥’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쌈을 먹는 것은 복을 먹는 것이라 여겼다. 〈동국세시기〉에 “보름날에는 취나물이나 배춧잎, 혹은 김에 밥을 싸서 먹으니 이것을 복쌈이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현대의 영양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양분이 듬뿍 들어 있는 야채를 밥과 함께 다량 먹는 것은 복을 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쌈채소인 상추를 옛날에는 은군초(隱君草)라 하여 음욕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상추를 서마지기 반이나 하는 년”이라는 욕이 다 생겼고, 텃밭 한 귀퉁이에 숨겨서 갈아 먹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채소에서 다시마까지… 입맛대로 싸 먹는 건강식

중국 사람들도 우리 상추를 귀하게 여겼던 모양이다. 중국의 고문헌 〈천록지여(天祿識餘)〉에 고려 상추는 질이 좋아 천금을 줘야 구할 수 있는 값진 채소라는 의미의 ‘천금채(千金菜)’라 한다는 대목이 나올 정도이다.

상추 외에도 쌈재료는 다양하다. 쑥갓, 깻잎은 물론 콩잎, 취, 미나리잎, 머윗잎, 산쓴바귀, 고춧잎, 소루쟁이잎, 아주까리잎, 시금치, 우엉잎으로도 싸 먹고 양배추나 어린 호박잎도 쌈재료로 동원된다. 18세기에 출간된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소채 중에 잎이 큰 것은 모두 쌈을 싸서 먹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땅에서 나는 채소 외에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다시마도 지금까지 사랑받는 훌륭한 쌈재료이다.

원래는 쌈도 그때그때의 제철 채소로 싸 먹는 시식이지만 신선

조선DB

한 재료가 없는 겨울철에는 말린 나물을 물에 불려서 싸 먹기도 한다.

쌈을 먹는 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쌈장이다. 쌈장은 대개 된장과 고추장을 적절히 섞고 깨, 참기름, 양파, 마늘, 파 등의 양념을 넣어서 만들지만 취향에 따라 다진 쇠고기를 넣고 볶아서 만들기도 한다. 갖가지 재료에다 된장을 넣고 되직하게 끓여 만든 강된장은 찐 호박잎쌈과 잘 어울리는 쌈장이다. 쌈을 쌀 때 구운 고기를 곁들여도 맛있고 고등어조림이나 조기조림을 얹어 먹어도 별미이다.

조선 말기 궁의 쌈 상차림에는 절미된장조치(쇠고기된장찌개), 병어감정(병어고추장조림), 웅어감정, 보리새우볶음, 장똑또기(장조림), 약고추장 등이 곁들여졌다.

하지만 쌈이 그리 점잖은 음식으로 대접받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가 저술한 수신서 〈사소절(士小節)〉에는 쌈을 쌀 때 직접 손을 대고 싸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입을 크게 벌리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쌈은 역시 설화집 〈어우야담(於于野譚)〉의 한 구절처럼 “두 손으로 들어올려, 종루에 파루(罷漏)친 후에 남대문 열리듯 입을 떡 벌리고 밀어 넣어” 가며 걸지게 먹어야 제맛이 난다. 서울 평창동의 ‘강촌쌈밥’은 다양한 쌈재료와 돌솥밥에 견과류를 섞은 쌈장을 올려 먹는 쌈밥이 유명하고, 논현동의 ‘원조쌈밥집’은 대패삼겹살을 곁들이는 쌈밥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G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그럴 줄 알았어

허균(許筠 · 1569~1618)에게는 늘 ‘풍운의 혁명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아마도 서자의 설움을 다룬 〈홍길동전〉의 작가이자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거부했던 삶, 그리고 역모에 연루된 비참한 말로 등이 합쳐져서 그런 수식어를 만들어 낸 듯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차분하게 살펴보면 조금은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그의 아버지 허엽은 당쟁이 시작되던 초기에 서인에 맞서 동인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최근 발굴된 그의 편지에 따르면 허균은 서인의 창시자이자 노비 출신의 학자인 송익필의 서손녀와 정혼했다고 한다. 반대당의 수장과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가 서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같은 혼인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관리로서 허균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선조27년(1594년) 문과에 급제했고 3년 후에는 문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과 중시에 장원을 했다. 이때부터 그의 글재주는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황해도 도사(都事)로 나갔는데 이때 한양의 기생을 불러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한다. 그후 다시 복직했지만 소위 요직에는 있지 못하고 한직을 돌다가 1604년 수안군수로 있을 때는 불교를 신봉했다는 이유로 다시 파직됐다.

재승박덕(才勝薄德)은 바로 허균을 두고 하는 말이다. 2년 후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조선을 찾아오자 그를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대학자이기도 했던 주지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덕에 삼척부사가 되지만 여기서도 불상을 모셔 놓고 염불을 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다시 공주목사가 된 허균은 서자들과 가까이 지냈고 결국 모종의 사건에 연루돼 다시 파직되었다.

정권은 광해군으로 바뀌었다. 광해군5년 계축옥사가 일어나려 할 때 자신과 가까웠던 서자들이 사건의 주모자로 떠오르자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당대의 실력자인 이이첨에게 빌붙어 대북파의 선봉장이 된다. 그후 탄탄대로를 달려 의정부 좌참찬에까지 오른 허균은 인목대비 폐모론이 제기될 때 극력 앞장선다. 반면 그와 가까웠던 영의정 기자헌은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마천령 너머 길주로 유배를 가게 된다. 여기서 허균의 운명은 갈린다.

기자헌의 아들 기준격은 자칫 허균과 가까웠던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고 여겨 허균의 죄상을 폭로하는 상소를 올린다. 허균이 극비리에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미려 했다는 것이었다. 뜻밖이었다. 한동안 기준격과 허균의 상소 공방전이 오가는 가운데 1619년 8월 남대문에 격문이 나붙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또한 역모의 내용을 담은 것인데 조사 결과 허균의 외가쪽 서얼이자 그의 심복인 현응민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허균은 역모의 혐의를 벗지 못하고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고 만다.

일러스트 · 유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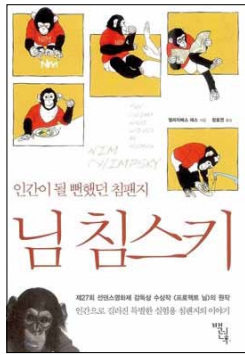
문신 중시에 장원 등 글재주 뛰어나지만 잇단 기행으로 벼슬살이마다 파직… 파직 계축옥사 땐 대북파 선봉장으로 앞장서다 반대파의 반격으로 역모 혐의 비참한 죽음

공자는 동생 같은 제자 자로에게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 있다. 이유는 불혹(不惑)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채 재주와 용맹만을 자랑하는 데 대한 경계의 말이었다. 실제로 자로는 비명횡사를 하게 된다.

허균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 줄 수 있다. 허균은 자제를 모르는 혹(惑)의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필자는 그런 점에서 허균에 대해 특별한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님 침스키〉

수화를 배운 침팬지의 비극

엘리자베스 헤스 지음 · 장호연 옮김
백년후 · 2만2천원

'과학 만능의 시대'에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려다 실패한 현대의 '바벨탑' 같은 이야기다. 비극의 주인공은 침팬지 '님 침스키(Nim Chimpsky)'.

침팬지는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DNA로는 98.7퍼센트가 일치한다. '님'의 불행은 인간과 닮은 침팬지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허버트 테라스는 침팬지에게 '말'을 가르치기로 했다. 이는 '언어는 인간에게만 내재된 능력'이라는 세계적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명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이름도 촘스키를 비꼬아 '님 침스키'로 지은 것. 성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말은 '수화'로 대신했다.

실험 대상은 1973년 11월 미국 오클라호마의 영장류연구소에서 태어난 새끼 침팬지. '님'은 생후 열흘 만에 뉴욕 웨스트 78번가의 일반 가정으로 입양됐다. 허버트의 제자로 님의 첫 대리모였던 스테파니는 이 수컷 침팬지를 친아들처럼 길렀다.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히고 양치질을 해주고 때론 젖도 물렸다. 생후 2개월부터는 수화를 가르쳤다.

님은 수화를 곧잘 따라했다. 처음으로 익힌 수화는 '마시다'. 주먹을 쥐고 엄지를 앞으로 내민 다음 부드럽게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었다. 2주가 지나자 님은 어떤 암시 없이도, 동작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마신다'는 신호를 보냈다. 두 달 만에 '주다', '위', '달콤한', '더 많이'를 터득했다. TV 쇼 등에도 등장한 님은 유명 인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섣부른 실험을 낳은 인간 욕심에 대한 관찰기

하지만 실험은 실험일 뿐이었다. 대리모의 결혼생활이 흔들리면서 님의 대리모는 계속 바뀌었고, 결국 비용부담이 겹치면서 뚜렷한 성과 없이 4년 만에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책은 프로젝트 이후 님의 비참한 생애까지 추적한다. 출생지인 오클라호마 사육실로 돌아온 님은 의학생체실험 연구소, 동물보호소 등을 전전한다. 님은 4년간 배운 수화로 인간과 소통하려 시도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수화를 못 알아듣거나 외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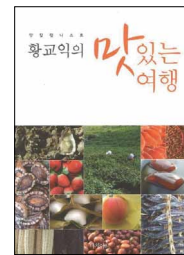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학자들은 님을 동물로 대하기보다는 '수치'로 봤고, 신기함에 열광하던 대중은 금세 잊었다. 그렇게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완전한 야생의 침팬지로도 살지 못했던 님의 생애는 2000년 심장폐색으로 마감된다.

보통 침팬지가 50년 정도 사는 것에 비하면 '요절'한 것이다. 실험대상이었던 침팬지의 실화를 다룬 이 책은 어쩌면 인간의 욕심에 대한 관찰기처럼 읽히기도 한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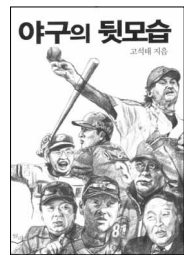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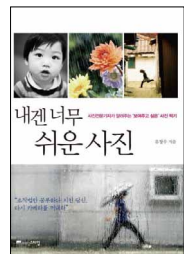
황교익의 맛있는 여행

황교익 지음 | 터치아트 · 1만8천원

이 책은 1년 사계절, 먹거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저자는 3년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음식 관련 글을 연재했다. 저자가 쓴 1백50여 개의 글 중 여행하면서 맛볼 만한 음식들을 뽑았다. 봄의 진주 딸기에서부터 겨울 춘천 막국수까지 각 계절별로 제철에 맛보면 좋을 먹거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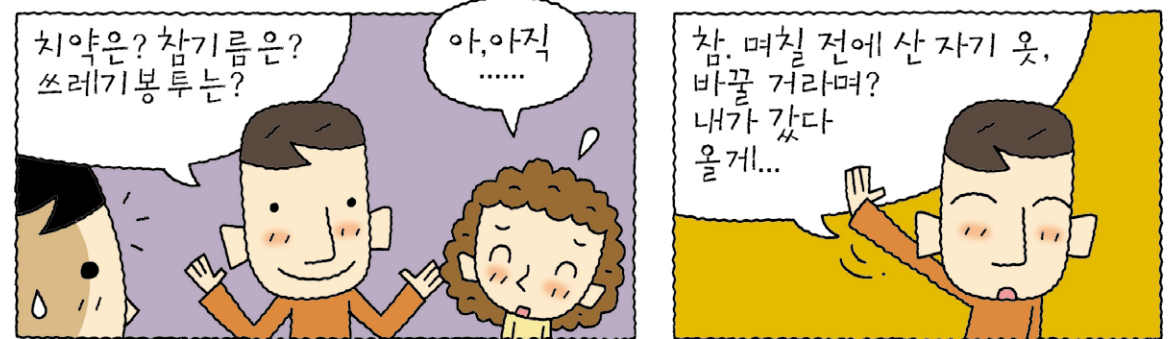
야구의 뒷모습

고석태 지음 | 일리 · 1만3천원

야구 담당 기자로 20년을 일한 저자가 오랜 현장 경험을 글로 엮었다. 한국 야구에서 벌어졌던 결정적 장면들뿐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뒷얘기도 풀어놨다. 최고투수 선동열이 보스턴 레드삭스에 가지 않은 이유, 이승엽이 수능에서 떨어진 이야기, 야신의 탄생, OB선수들의 집단 이탈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최동원, 선동열, 박찬호 가운데 역대 최고의 투수는 누구인지, 이승엽, 이대호, 추신수, 김태균 중 최고 타자는 누구인지 등 야구팬들 사이의 대표적인 논쟁거리도 짚었다.

내겐 너무 쉬운 사진

유창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1만5천원

저자는 기술에 치중하기 이전에 사진 찍는 재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쉬운 사진 노하우'를 소개한다. 책은 인물, 일상, 풍경, 사진 놀이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아기 돌과 백일 사진 셀프로 찍기, 삼각대가 없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초보 사진가가 궁금할 만한 이야기도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심부름 잘하는 까닭

글과 그림 · 최영순

만일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라면 미소는 그곳에 뜨는 무지개다. - 트리

창작발레 〈왕자호동〉은 신비한 북 '자명고'를 둘러싼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비극적 사랑이야기이다.

우리 설화가 발레와 만나다

〈왕자호동〉

국립발레단이 초대 예술감독 고(故) 임성남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헌정공연을 연다. 발레 〈왕자호동〉은 1988년 임성남 선생의 안무로 초연된 후, 그의 제자인 문병남 국립발레단 부예술감독이 다듬어 2009년에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이탈리아의 산카를로 극장, 일본의 사이타마 예술극장에서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다.

〈왕자호동〉은 정통 발레에 한국의 고전문학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내용은 신비한 북 '자명고'를 둘러싼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비극적 사랑이야기. 〈삼국사기〉에 나오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가, 전쟁, 사랑, 배신, 죽음, 주술을 테마로 하여 고전적 감성에 현대적인 기술을 더했다.

총 2막 12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춤 형식을 보여줄 예정이다. 28명의 남성 무용수들이 검무, 태권무 등의 군무를 선보인다. 호동과 낙랑이 사랑을 표현하는 춤과 한족, 위그르 등 다양한 부족들이 결혼피로연에서 추는 춤사위 또한 볼 만하다. 이번 작품의 음악 형식 또한 독특하다. 후기 낭만주의 발레음악형식의 기본인 오케스트라편성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악기들을 활용했다. 특히, 한국전통음악의 수제천 형식(조선시대 왕들이 행차할 때 쓰던 음악 형식)을 바탕으로 거문고, 나발, 박 등의 전통 악기를 추가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G

정리 · 정소안 인턴기자

기간 11월 11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5

전시 2012 도어즈 아트페어

〈2012 도어즈 아트페어〉가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다. 도어즈 아트페어는 젊고 역량 있는 신진작가들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아트페어다. 일반적으로 부스를 대용하는 전시와는 달리 호텔의 객실을 활용한 작품 전시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40여 개의 호텔방이 국내외 29개 갤러리 및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기간 11월 9~11일 **장소**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8층 **문의** ☎070-8836-8718

공연 발레리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자신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각각 2위, 3위를 차지한 손열음과 조성진이 협연하여 러시아를 대표하는 명 협주곡을 연주한다. 손열음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1번, 조성진은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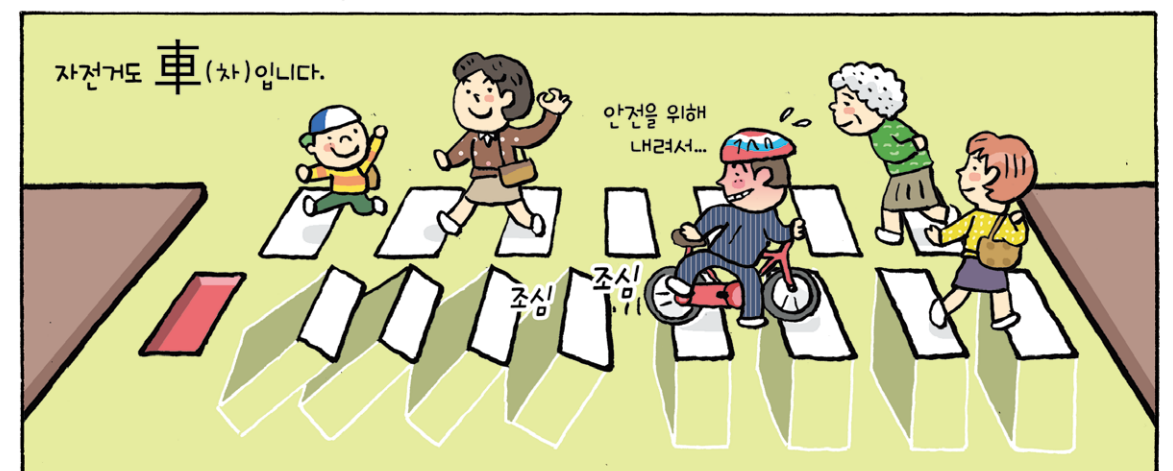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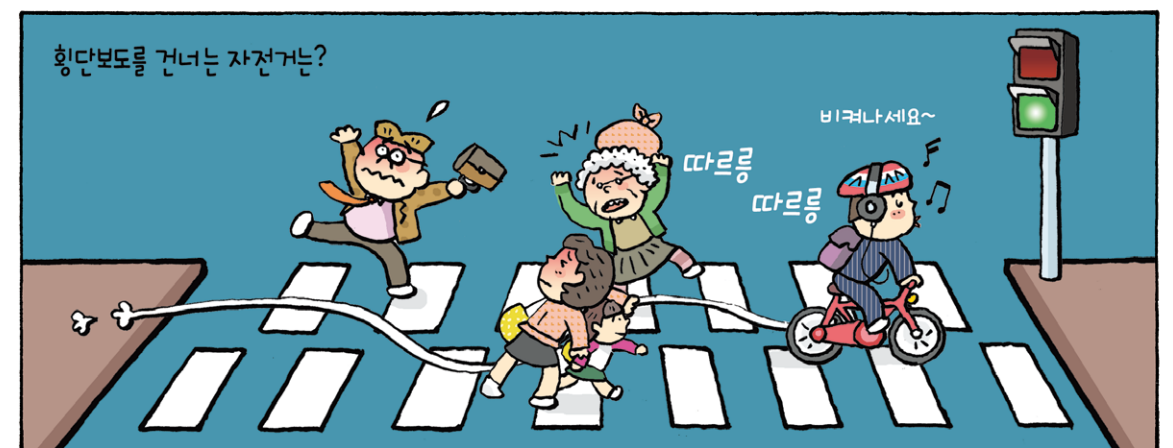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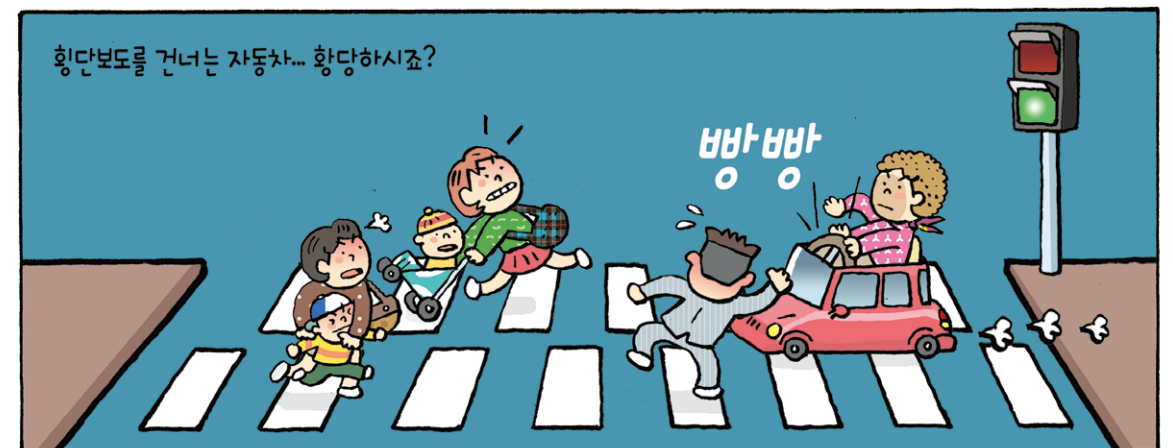
기간 11월 6~7일 **장소**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70-8680-1277

10월 마지막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0월 14일~10월 20일

	곡명	가수
1	춤다	에픽하이(Feat.이하이)
2	피어나	가인
3	Fine Thank You And You	10cm
4	이러지마 제발	케이윌
5	바람기억	나얼
6	I Dream	15&(박지민,백예린)
7	크레용	G-Dragon
8	Missing You	G-Dragon
9	All for You	정은지, 서인국
10	립스틱	오렌지 캬라멜

자전車(?)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좋은 습관에서 안전은 시작됩니다.

부대찌개냐… 부대찌게냐

부대찌개는 광복 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햄과 소시지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다. 의정부나 동두천 부대찌개가 매우 유명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식당들도 '의정부부대찌개'나 '동두천부대찌개'란 간판을 단 곳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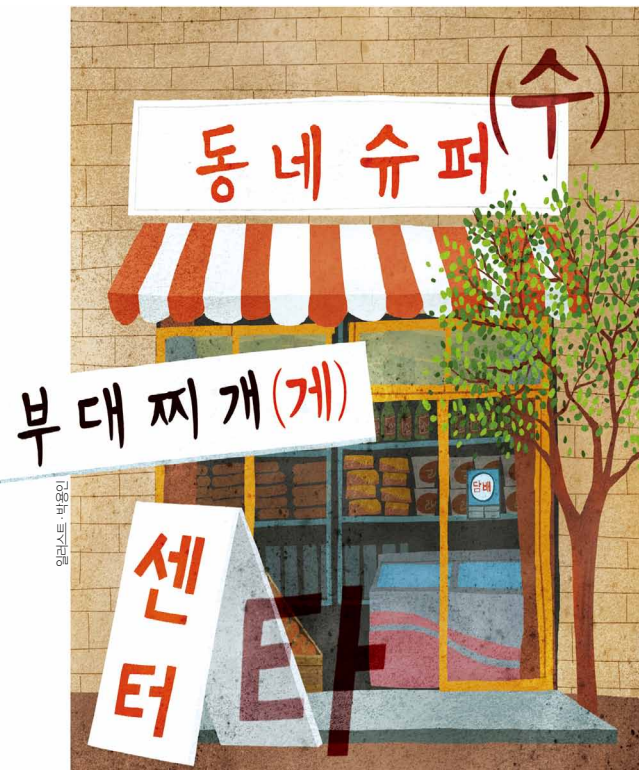
일산 산들마을에 살 때, 아파트 단지 앞에 부대찌개 집이 있었는데, 간판이 좀 묘했다. 흔히 '찌개'를 '찌게'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앞쪽 간판에는 '부대찌개', 뒤쪽 간판에는 '부대찌게'라고 적혀 있었다. 우연히 두 개의 표기가 함께 걸린 걸 발견하고는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상상을 했다.

'아저씨랑 아줌마가 서로 내가 맞다고 우기다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둘 다 써서 건 걸까? 아니야, 어쩌면 이 집은 이중 영업을 하는지도 몰라. 앞으로 들어가는 손님에게는 부대찌 '개'를 팔고, 옆으로 들어가는 손님에게는 부대찌 '게'를 파는 거 아닐까? 만일 '개'가 멍멍 짖는 그 개라면 잘 보고 들어가야겠는걸!'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서울에도 비슷한 간판이 있었다. 이 집은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동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다. 그런데 언제부터 구멍가게라는 단어가 우리입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 '구멍가게가 정감 있고 좋은데!' 아마도 슈퍼 때문일 것이다. 영어만 좀 쓰면 있어 보이는 걸로 착각하는 이들이 조그만 가게에마저 '슈퍼'라는 이름을 붙였다.

먹고살기 힘들어도 글자는 똑바로 쓰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슈퍼 역시 '찌개' 못지않게 헷갈린다는 것이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떤 집은 '슈퍼'란 간판을 달고 있고, 어떤 집은 '수퍼'란 간판을 달고 있다. '수퍼' 아래 빨간 줄이 나오는 걸 보면 '수퍼'는 틀린 표기, '슈퍼'가 맞은 표기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거리에는 '수퍼'가 더 많고 사람들 발음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수퍼' 쪽이 더 많다.

그 집 간판은 앞쪽은 '○○수퍼', 옆쪽은 '○○슈퍼'다. 어떤 사람들은 슈퍼, 어떤 사람들은 수퍼라고 하니 그 가게 주인장께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둘 다 거셨는지도 모른다. 그렇잖은가? 가게에서 무슨 이중 영업 할 일도 없고, 단지 슈퍼 찾는 손님이나, 수퍼 찾는 손님이나 모두 놓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 얘기 꺼낸 김에 하나만 더 지적하자. 다름 아닌 '센타'다. 이것도 올바른 표기는 '센터'다. 그렇지만 카센타, 스포츠센타, 심부름센타, 상담센타, 관광센타 등등 온갖 센타가 즐비하다. 동네에 하나씩 있는 동주민센터가 올바른 표기를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하튼 무심해도 너무 무심하다. '찌개'든 '찌게'든, '슈퍼'든 '수퍼'든, '센터'든 '센타'든, 표기가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다. 밥만 먹으면 되고, 과자만 사면 되고, 차만 고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밥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요즘 경기 어렵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배부른 소리 한다는 핀잔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자. 먹고살기 힘들어도 글자 하나 똑바로 쓰는 건 할 수 있다. G

글 · 정재환 (방송인 ·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